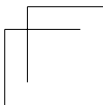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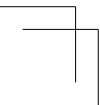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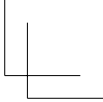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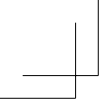


교회개혁과 성장을 돕는

개척레시피

—
SESSION 4



기독교대한감리회
미지림교회 성장을 위한
정책 자료집

교회개혁과 성장을 돕는

개척레시피

SESSION 4

The Recipe for church Planting



기독교대한감리회 본부 선교국

격려사



이 용 원 감독
(선교국 위원장)

“모든 민족을 제자삼아...”

위드 코로나 시대의 척박한 상황에서도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마 28:19)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여 복음전파의 귀한 사명을 힘 있게 감당해 나가는 모든 교역자들 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이 풍성히 임하길 기원합니다.

한국 교회들은 코로나 이후에 교회 부흥을 이루고자 모든 목회적인 노력을 기울이며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아직 예배 출석 성도의 수가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되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영향은 사회 전반에도 폐해를 끼쳤으며, 국제 무역의 혼란과 갈등, 경제적인 침체, 청년 일자리의 부재, 주거환경의 불안정, 저 출산, 외국인 노동들의 증가 등으로 인해 정서적, 심리적 불안감 등으로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 질병으로 고통당하거나, 펜타닐 등의 마약 복용 등으로 인해 삶

이 피폐해지는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때야말로 생명을 살려야 할 사명을 지닌 모든 교회들이 세상에 진정한 희망을 주며, 구원의 복음을 힘써 전해야 할 때입니다.

선교국에서 교회 개척과 성장을 위해 발간된 [개척레시피]가 금번에 4번째로 발간하게 된 일은 참으로 감사하고 기쁜 일입니다. 금번에 발간된 책에도 귀하고 값진 개척 사례들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열매를 맺은 구체적인 사역 자료들이 담겨있습니다. 10분 목사님들의 글에는 수년간 아픈 가슴을 부여잡고, 인내하며, 밤새워 기도하며 때로 눈물을 흘렸던 때에 빛어진 간증들과 사역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개척레시피 4]를 통해 목회적인 아이디어를 얻으며, 목회에 임하는 목회자의 태도와 기본기를 더욱 새롭게 정립하는 유익을 얻게 될 것입니다.

모든 개척교회 교역자들에게는 신선한 목회 정보들을 제공하는 매뉴얼로서, 바른 사역의 방향으로 이끄는 네비게이션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될 4번째 [개척레시피]가 발간되도록 기꺼이 본인의 소중한 목회 노하우와 경험들을 제공해 주신 저자들에게, 그리고 책자 발간을 위해서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나가는 동역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요, 충성스러운 일꾼으로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각자의 사역지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음으로써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을 받아 주님의 증인이 됩시다(행 1:8). 할렐루야!

발간사



태 동 화 목사
(선교국 총무)

개척교회 목회자는 ‘복음의 전도자’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입니다. 이 명령을 따라 교회를 개척하고 땀과 눈물을 흘리는 수고를 아끼지 아니한 10분의 목회자가 있습니다. 곽형석, 권인, 김시원, 김종범, 안사무엘, 오만중, 이경록, 장두민, 정석용, 황창수 목사님. 이 분들은 ‘복음의 전도자’입니다.

“개척 레시피 4”는 이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복음의 전도자들’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각각의 달란트를 땅에 묻어 두지 않고 세상에 나가 열심히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의 갑절의 열매를 거두어 주인에게 돌려드린 착하고 충성된 종들의 이야기입니다.

10분의 복음 전도자가 주님께 드리는 열매의 색깔도 다양합니다. “선교-전도 중심교회”, “사역 중심교회”, “어린이-청소년교회”, “청년교회”, “문화 중심교회”, “농어촌교회”, “공유교회” 등. 각각 겉모습도 속 내용도 다르지만 주님이 맡겨주신 적은 일에 충성한 일꾼들의 간증입니다. 이 간증 속에는 더 많은 것을 맡기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 책에 소개된 개척교회 사역 보고가 최전방 ‘복음의 전도자’로서 나아가고 있는 이 땅의 개척교회 목회자들에게 조그마한 힘과 소망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추천사



황 병 배 교수
(협성대학교 신학대학장)

“요즘 누가 개척하나요?”

“요즘도 개척하면 되나요?”

종종 이런 질문을 받는데 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현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신학교를 졸업하면 당연히 개척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아직 졸업하지도 않았는데 개척하는 전도사들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한국교회가 부흥을 경험하고 있던 때였고, 개척해서 기본만 해도 교회가 성장하던 때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한국교회 전체를 놓고 볼 때, 한 해 동안 문 닫는 교회가 3천여 개에 이르고, 감리교만 보더라도 매년 약 60여 개 교회가 문을 닫습니다.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고 개척한다면 십중팔구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몇 해 전 개척/미자립 정책위원회의 때, 위원 한 분이 제안하기를 음식을 만드는데도 요리법을 정리한 레시피(recipe)가 있는 것처럼, 교회를 개척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한 ‘교회개척 매뉴얼’이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였고, 모두 동의해서 집필된 책이 2019년에 나온 『개척 레시피』 제1권입니다. 이 책은 육하원칙에 따라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개척해야 하는지를

간결하고 분명하게 정리했을 뿐 아니라, 개척 유형을 7개(선교-전도중심교회, 사역중심교회, 어린이청소년교회, 농어촌교회, 복지중심교회, 문화중심교회, 청년교회)로 나누고 실제 사례들을 제공함으로써 교회 개척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 계속해서 개척 레시피 제2권, 제3권이 나왔고, 이번에 『개척 레시피』 제4권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 개척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개척 레시피』 제1권부터 읽기를 권합니다.

물론 그 매뉴얼대로 하면 다 성공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앞서 교회를 개척한 분들의 사례를 통해 교회 개척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자립교회로의 정착을 위해서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한 『교회 개척 지침서』라 하겠습니다.

제1~4권까지의 개척 레시피를 보면, 사례에 나오는 개척자들에게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개척에 대한 분명한 소명과 사명 의식이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모두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냅니다. 그럼에도 절대로 소망을 잃지 않고 인내하며 앞으로 나아갑니다. 개척을 통해 얻는 기쁨과 열매가 클 뿐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성장하고 하나님의 나라(통치)가 확장되어 가기에 힘들지만 계속되어야 할 사명이 ‘교회 개척’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이 책은 “요즘 개척하면 되나요?”라는 질문에 분명한 답을 주는 책입니다.

교회성장학자들은 교회가 끊임없이 개척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새로운 교회가 계속해서 개척되지 않으면 교회는 소멸될 것입니다. 교회개척은 황무지에 나무를 심는 것과도 같습니다. 황무지에 나무를 심으면 시간이 흘러 그곳은 숲이 됩니다. 심은 모든 나무가 다 사는 것은 아니지만, 그 가운데 많은 나무들이 살아남아 열매를 맺고 큰 숲을 이룹니다. 이것을 소망하면서 오늘도 선교 현장에서 고군분투하는 교회 개척자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함께하시기를 기도하며, 교회 개척을 준비하는 모든 신학생들과 목회자들에게 이 책을 추천합니다.

CONTENT

| 격려사 | 이용원 감독(선교국 위원장)

| 발간사 | 태동화 목사(선교국 총무)

| 추천사 | 황병배 교수(협성대학교 신학대학장)

개척 사례

1

선교-전도 중심교회

- 1) 살리는교회 _ 안사무엘 목사 / 14
- 2) 더함교회 _ 권인 목사 / 20
- 3) 새일교회 _ 정석용 목사 / 27

2

사역 중심교회

- 1) 로템나무교회 _ 황창수 목사 / 34
- 2) 세움교회 _ 김종범 목사 / 42

3

어린이-청소년 교회

예임교회 _ 곽형석 목사 / 49

4

청년 교회

부천주의나라교회 _ 김시원 목사 / 59

5

문화 중심교회

오빌교회 _ 오만중 목사 / 67

6

농어촌 교회

삼시벤엘교회 _ 장두민 목사 / 76

7

공유 교회

살아있는교회 _ 이경록 목사 / 85

미자립 관련 정책

국내선교부 / 93

| 나가는 글 | 박영진 목사(개혁미자립정책위원회 위원장)



개척 사례

1. 선교-전도 중심교회

2. 사역 중심교회

3. 어린이-청소년교회

4. 청년교회

5. 문화 중심교회

6. 농어촌교회

7. 공유교회

살리는교회

안사무엘 목사

1. 살리는교회는?

2010년 3월 22일에 개척된 은성교회에 2015년 9월 14일에 필자가 제3대 담임자로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다. 아내와 7개월 된 첫째 아들과 함께 30살의 나이로 첫 단독목회를 시작하여 지금은 9년 차 담임목사가 되었다. 당시 출석 교인 4명에 1천만 원 결산이었던 교



회는, 현재 출석 교인 40명에 결산 1억 원의 도약교회로 성장하게 되었다. 특히 어려운 코로나 팬데믹 시기를 지나면서 꿈에 그리던 지상 예배당으로 이전하게 되었다. 교회 이름도 은성교회에서 살리는교회로 새롭게 바꾸었다. 35평 남짓의 열악한 지하에서 시작하여, 만 7년 만에 엘리베이터가 있는 지상 5층에 90평의 근사한 공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

2. 교회의 출발

수련목 3년 차에 동료 전도사님의 소개를 받아 인천에서 담임목회를 시작하였다. 줄곧 청소년 사역을 해오기도 했고, 교회 바로 앞에 학교들이 밀집되어 있어서 다음 세대 사역을 하면 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전혀 다르게 펼쳐졌다. 개척 초기에 장인어른이 뇌경색으로 갑자기 쓰러지시면서 병원에 자주 드나들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치유사역'의 길이 열리기 시작했다. 아무리 학교 앞에서 전도해도 오라는 학생들은 오지 않고 병자들이 찾아왔다. 알콜 중독, 소아마비, 희귀병, 정신장애 등등 육체와 마음에 심각한 병을 앓고 있는 분들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 치유되는 은혜가 있었다. 그렇게 4명으로 시작했던 교회는 2년 만에 15명으로 성장하게 되었다.

2017년 9월, 만 2년 만에 교회를 이전하였다. 똑같은 지하였지만 천 세대 아파트 상가라는 이점이 있었다. 이때부터 주변 아파트들을 대상으로 축호 전도를 했다.



교패가 붙어 있지 않은 집들을 두드리면서 ‘아파트 상가에서 나왔습니다’라고 인사를 하면 정말 간혹가다가 문을 열어주는 집이 있다. 그러면 준비한 10리터짜리 종량제 쓰레기봉투를 건네면서 ‘이 앞 상가교회에서 나왔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있다면 이 쓰레기봉투에 함께 담아 버리시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라는 짧은 메시지를 전하였다. 물론, 대다수 집에서 문전박대를 당했지만, 어리석어 보이는 전도에도 하나님은 결실을 보게 해주셨다. 새로 이사를 와서 교회를 정하고자 했던 한 가정이 축호 전도를 받은 바로 그 주에 교회를 방문하였고 곧바로 등록했다. 그리고 그다음 주에 또 한 가정이 등록했다. 약 3년 만에 처음으로 젊은 부부 가정이 등록한 것이라 얼마나 기뻐는지 모른다. 이 두 가정이 들어오면서 교회학교 예배가 드려지기 시작했다. 사실 교회학교 예배가 없는 교회에 젊은 부부가 등록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다. 그러나 이분들은 오히려 그것을 자신들의 사명으로 인식하였다. 그렇게 어린이 예배가 신설되고, 1년이 지나지 않아 청소년 청년 예배가 신설되었다.

개척교회는 모든 것이 처음이다. 속회와 선교회를 새로 만들었다. 부흥회라는 것도 처음 열어보았다. 교회학교 예배도 처음 시작하였다. 성경학교와 수련회도 처음 가졌다. 기존 교회의 틀 안에서는 당연히 여겼던 것들이 개척교회에서는 당연한 것이 아니라 간증이고 기적이 된다. 부흥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군가가 마중물이 되어야 하고 밑거름이 되어야만 한다.

3. 잃은 것과 얻은 것

2020년, 코로나 팬데믹이 찾아왔다. 한참 부흥의 가도를 달리던 교회의 성장세가 멈추게 되었다.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다 보니 이제 막 믿음 생활을 시작하는 이들은 점점 교회와 멀어지게 되었다. 참으로 힘든 시간이었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오히려 얻게 된 것들이 더 많았다. 온라인 예배를 위한 장비들

을 부랴부랴 준비하고 계획에도 없던 온라인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다. 만일 코로나 팬데믹이 아니었다면 꿈도 못 꿀 일이다. 현재 살리는교회 유튜브의 구독자 수는 400명이 넘는다. 주일예배 출석 인원의 정확히 10배다. 새벽예배는 2~3명이 앉아 있는데 온라인으로는 평균 15명이 들어온다. 그중 1/3가량은 타교회 성도들이다. ‘내 교회’ 중심의 패러다임이 점점 바뀌고 있다. 이전까지는 재적수, 출석수, 재정결산 등이 교회의 평가지표였다면 이제는 온라인 구독자수, 조회수가 새로운 교회의 평가지표로 떠오르고 있다. 이제 온라인 사역은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해야만 하는 필수가 되었다. 특별히 공간이나 인프라적으로 불리한 개척교회로서는 더더욱 포기할 수 없는 선교의 황금어장이다.

온라인으로 예배와 설교가 노출되니 더욱 준비가 철저히 할 수밖에 없다. 또 예배 인도와 설교를 모니터링하면서 얻게 된 유익이 크다. 별 의미 없이 덧붙여지는 추임새들, 불필요한 제스처들, 너무 긴 호흡들, 짝다리를 짚거나 두 손을 강대상에 기대는 습관들을 하나씩 교정해 나갔다. 원고를 벗어날수록 불필요한 호흡들이 길어지기에 더욱 완성도 높은 원고를 지향하게 되었다. 한 설교자 개인으로서 꼭 필요한 훈련을 하게 된 셈이다.

또한, 함께 모여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온라인 골방기도를 통해 마음을 모으게 되었다. 새벽예배 후 실시간 채팅으로 기도제목이나 기도문들을 올리고 성도들 개개인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였다. 골방기도 사역을 꾸준히 하다 보니 우리 교회 성도들뿐 아니라 타교회 성도들도 온라인 예배에 참석하며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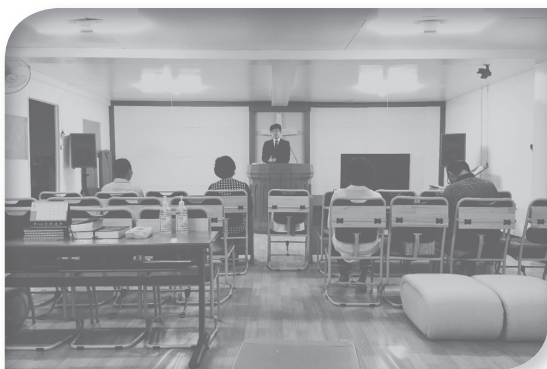
었다. 4년째 골방기도 사역을 지속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대면 전도가 어려워졌기에 피켓 전도를 시작하게 되었다. 이른바 ‘침묵전도’이다. 피켓 전도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다. 첫 번째는 전도용품의 단가를 절약할 수 있다는 점이다. 매일 전도를 하면 전도용품을 준비하는 일도 만만치 않게 부담이 되는 일인데 피켓 전도는 피켓만 준비하면 비용 부담이 없다. 두 번째는 차로 지나가는 사람들도 볼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차를 타고 지나가다가 피켓을 보고 교회에 온 사람도 있다. 세 번째는 이어폰을 끼고 있는 사람들도 메시지를 볼 수 있다는 점이다. 눈을 감고 다닐 수는 없기 때문이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깨닫게 된 것이 있다. 잃은 것이 있으면 얻는 것이 있다는 것, 닫힌 문이 있다면 새로 열리는 문이 있다는 것이다. 코로나의 위기는 오히려 기회가 되었다.

4. 성경 66권 말씀 사역

살리는교회는 분명한 비전이 있다. 기록된 말씀 성경 66권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 먼저 내가 살아나고 회복되어, 가정과 민족을 살리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책별로 단락별로



문맥의 흐름을 따라 깊이 고찰해 나가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하는 것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다.

그래서 모든 예배의 설교를 66권 성경을 중심으로 디자인하게 되었다. 새벽예배 설교는 자체 제작한 1년 성경읽기표와 성경도표책을 중심으로 그날 해당된 책과 본문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어떤 음성을 들어야 하는지를 함께 나누고 각자 소그룹 안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수요일예배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권의 책을 선점하여 어떻게 성경 말씀으로 기도하는지에 대한 법을 나누고 있다. 주일예배는 성경도표책에서 다루는 주제들을 시리즈로 만들어서 설교한다. 모든 설교의 주제를 하나로 통일되게 하고 있다.

5. 나가는 말

살리는교회는 하나님 말씀의 부흥을 사모하는 사람들의 공동체이다. 예배 소교회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힘을 얻고 세력을 얻는 거룩한 부흥을 경험하여 민족과 열방을 살리는교회가 되기를 기도하며 오늘도 기쁨으로 달려 나간다.

더함교회

권인 목사

지난 2020년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이후 감리교회 성도는 10만여 명이 감소했지만, 교회 수는 큰 변화가 없었다. 이런 침체 속에서는 미자립 교회뿐만 아니라 자립한 중소형 교회들도 어려움을 겪었다. 한두 가정만 교회에 출석하지 않아도 교회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온라인 신앙생활의 비율이 높아지고,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슈가 많아 이 침체기를 벗어나기가 쉽지 않게 되었다.

더함교회는 이런 상황 속에서 세워졌고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다. 더함 교회의 사역 이야기를 통해 중소형 교회들이 힘을 내어 건강히 성장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



1. 더함교회는?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에 위치한 더함교회는 분리 개척되어 세워진 교회이다. 분리 개척할 위치를 찾던 중, 은행 대출로 힘겨워하던 지방의 한 교회의 건물을 매입하게 되고, 대출을 정리하고 유지재단에 편입하면서 2021년 1월 더함교회로 새롭게 시작하였다. 이때 분리 개척에 함께 한 성도들과 매입한 교회에 남아있던 교인을 합쳐 20여 명이 함께 있었다.

2021년은 코로나19로 모든 교회가 힘들어할 때였다. 새롭게 더함교회를 시작한 지 2주째인 2021년 1월 둘째 주일 헌금은 167,000원이었다. 사례비는 커녕 교회 건물 관리도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2023년 현재, 주일예배는 1부와 2부로 나누어 드리고 있고, 예배 출석도 장년 80명, 교회학교 15명을 유지하고 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더함교회가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리고 다음 세 가지의 핵심 사역이 있었다.

2. 더함교회가 걸어온 길

1) 말씀과 예배가 중심인 교회

“말씀을 더하여 삶을 온전히”

이 표어는 더함교회 사역의 핵심이다. 삶의 온전함은 성도가 평생 가지고 살아야 할 신앙의 목표(마 5:48)이자 웨슬리가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완전’을 의미한다. 온전한 성도의 삶으로 세상(지역사회)의 온전함을 이룬다. 이 핵심 사역의 시작은 ‘말씀’에서 비롯되었다.

코로나19는 주일예배를 제외한 교회 안의 모든 모임을 중단시켰다. 하지만 전혀 문제 될 것이 없었다.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주일예배를 통해, 성도들이 일주일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었다. 그래서 설교 준비에 힘을 쏟았다. 회개와 고백이 있는 예배 순서를 기획하였다. 재정이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찬양사역자를 따로 두어 준비된 찬양 안에서 온전한 고백을 드리고 은혜를 누리게 하였다. 더함교회 사역 초기는 온전한 예배를 위해 힘쓰는 시간이었다. 성도들은 예배 안에서 은혜를 누리고, 그 힘으로 일주일을 살았다. 그렇게 코로나19의 어려운 시기를 지났다.

코로나19로 인해 매일 교회에서 모여 기도회를 할 수 없었지만, 온라인을 통해 말씀을 나누는 것은 쉬지 않았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6시면 어김없이 말씀을 묵상한 글을 올리고 성도들의 삶에 적용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했다. 더함교회에서는 이것을 ‘매일말씀더함’이라고 부른다.

‘매일말씀더함’은 QT책이나 온라인 묵상 글을 참고하지 않았다. 매일 성경 1장을 읽고 담임목사가 직접 묵상의 글을 작성한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설교를 준비하듯 성도들의 삶과 교회의 상황을 생각하며 묵상 글을 작성하면, 성도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말씀을 적용하고 기도하는 데 어려움이 없었다. 2023년부터는 아침 6시에 ‘매일아침기도회’를 시작했는데, 매일 성경 한 장을 읽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한다. 이때도 성경 안에서 직접 본문을 선택하고 설교 원고(10분 이내)를 작성한다. 그리고 기도회에 참여하지 못한 성도들도 말씀만큼은 꼭 묵상할 수 있도록 설교한 원고를 요약하여 ‘매일말씀더함’을 만들어 삶에 적용할 질문과 기도 제목을 함께 온라인에 올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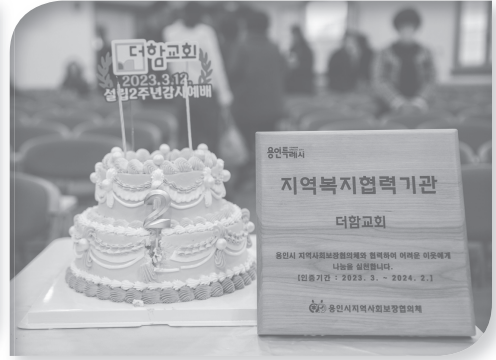
더함교회의 사역 핵심은 말씀이다. 누군가는 너무 당연한 이야기라고 말하지만, 그 당연한 ‘기본’이 안 되면 교회의 어떤 사역도 온전할 수 없다. 아무리 많은 사역이 있어도 말씀 안에서 그 사역이 필요한 이유를 성도들이 깨닫지 못하면 아무도 교회에 헌신하지 않는다. 교회와 성도는 온전한 말씀 안에서 성장하고 쓰임 받아야 한다. 그래야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

2) 이웃을 섬기는 교회

예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고 말씀하셨다. 더함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과 더불어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게을리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그 시작은 2021년 5월이었다. 용인시 관내 ‘아동공동생활시설(가족과 거주할 수 없는 아이들이 모여 사는 시설)’ 7 곳을 선정하여 신발과 가방, 식료품을 전달할 계획을 세웠고, 이를 위해 2주간 드러진 현금 전액을 사용하기로 하였다. 더함교회 사역 첫 해이고, 코로나19로 재정이 불확실한 시기여서 염려도 있었다. 하지만 염려와 달리 성도님들은 이 섬김을 위해 평소보다 많은 현금으로 헌신하셨다. 한 성도님의 가족은 먼 지역에 사시면서도 우리 교회의 섬김에 동참하고 싶으시라며 쌀을 보내주기도 하셨다. 그렇게 더함교회 첫 번째 이웃 섬김은 의미 있는 열매를 맺었다.

이를 계기로 매년 5월, 교회가 위치한 모현읍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팀과 협력하여 ‘사랑 더해, 봄’이란 이름의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2022년 5월에는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정의 어린이와 청소년을 10명을 선정하여 300만원을 지원하였고, 2023년 5월에는 가족의 돌봄을 받지 못하는 1인 가구를 10가정을 선정하여 300만원 지원하였다. 그리고 매년 성탄 현금 전액을 ‘메리크리스마스, 모현’이라는 이름으로 모현읍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팀에 기부하여 이웃을 위해 사용하고 있다. 또한 올해부터는 ‘이웃 사랑현금’이라는 현금을 만들어, 성도님들이 이웃을 섬기는 일에 동참하도록 하





고 있다. 모아진 현금으로 튀르키예와 시리아 강진 피해를 입은 이웃들을 섬겼고, 여름에 수해를 입은 비전교회의 수해복구비용으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이런 사역들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동참하고자 하는 성도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또한 이웃을 섬기는 일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교회의 다른 부분에도 더 열심히 헌신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더함교회는 지난 3년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웃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는 교회가 건강히 성장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3) 교회와 지역사회의 중간지대, 꿈더함작은도서관

코로나19는 교회 안의 공간을 공허하게 만들었다. 성도들이 교회를 찾지 않으면, 교회 안의 여러 공간은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알게 되었다. 코로나19의 상황이 끝나도 이전처럼 매일 성도들이 와서 무엇인가를 하는 것은 어려워졌다. 이제 교회마다 비어있는 공간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고민해야 할 때였다.

더함교회도 1층에 사용하지 않는 공간이 있었다.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고

민하던 중, 지역사회와 교회의 중간지대가 필요함을 깨닫게 되었다. 교회가 아무리 노력해도 지역 주민들이 바로 교회로 들어오기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중간지대에 대한 고민으로 다수의 교회가 교회 안에 카페를 만들어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게 하였다. 하지만 카페는 한계가 있다. 자신들이 원하는 사람들과 함께 와서 이야기를 나누고 돌아가기 때문이다. 그들과 어떤 이야기를 나눌 수가 없었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작은도서관’이었다. ‘작은도서관’은 단순히 책을 읽는 곳이 아니다. 지역의 주민들이 함께 모여 여러 문화를 경험하고 나누는 것, 다시 말해 ‘마을 공동체’를 만들고 운영하는 것이 ‘작은도서관’의 목적이다. 교회의 빈공간과 이 목적이 잘 어울릴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고, 더함교회 사역을 시작하면서 작은 도서관도 함께 준비하였다. 지역 주민들에게 공간의 부담감을 덜고자, ‘꿈더함작은도서관’이라는 이름으로 2021년 10월 용인시로부터 정식 인가를 받고 2022년 봄, 정식으로 개관하였다.

이제 만 2년도 되지 않았지만, 그 열매는 매우 놀라웠다. 작은도서관에서 진행되는 각종 문화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주민들이 교회를 찾아오고, 서로 관계를 맺고, 공간을 활용하였다. 교회와 전혀 상관없는 지역 주민의 모임들도 도서관의 공간을 빌려 진행하기도 하고, 2023년에는 도서관 내에 지역주민들과 함께 플리마켓을 열어 지역축제와 같은 하루를 만들기도 했다.

작은도서관에 주관하는 프로그램에 한 번 참여했던 주민들은 더 쉽게 또 다른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고, 그렇게 자주 만나면서 관계가 깊어지게 되었다. 그렇게 맺은 관계가 또 다른 관계를 만들고 연결되면서 지역의 여러 사람이 교회로 찾아왔다. 교회라는 이름으로 밖에 나가면, 단 한 명도 제대로 이야기 나누기 어려운데, 작은도서관은 교회를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찾아와 교제하고 관계를 맺는 공간으로 만들어 주었다.

이렇게 ‘꿈더함작은도서관’은 지역의 또 다른 마을 공동체가 되었다. 그리고

공간에 대한 좋은 이미지는, 지역에 교회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갖게 하였고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큰 힘이 되었다.

3. 마치는 글

이 외에도 해외선교사역, 마더와이즈, 평신도교육 등 더함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사역이 있다. 짧은 시간 내에 더함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여러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힘은 ‘성도의 변화’에 있다. 변하지 않는 성도로는 교회의 어떤 변화도 만들어 낼 수 없다.

더함교회가 자랑할 수 있는 한 가지는 ‘변화되는 성도’가 많다는 것이다. 성도님들을 만나면 다른 성도에 관한 이야기를 자주 듣는다. 물론 비판이 아닌 ‘온전한 변화’에 대한 이야기이다. 온전히 변화되는 성도의 모습이 다른 성도들에게 긍정적인 자극이 되고, 그런 변화가 모여 더함교회의 건강한 성장을 이룰 수 있었다. 그 변화의 시작은 말씀이다. 모든 사역의 시작은 성도의 삶에 온전한 변화를 이끌어 내는 말씀에 있음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더함교회의 사역 이야기를 마치겠다.

새일교회

정석용 목사

돌아오는 차 안에서 뜨거운 눈물이 주룩주룩 흘렀다. ‘내가 개척교회의 담임자라니!’ 지방 실행부위원회에서 새일감리교회 개척이 승인되었기 때문이다. 개척은 내 평생에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다. 그 눈물에는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감격, 감사, 기대.”

1. 새일교회는?

새일교회는 동부연회 정선지방에 소속된 교회로, 현재 민동산 자락에 있다. 정선에는 강원랜드라는 공기업이 있다. 스키장과 워터파크, 골프장을 운영하지만 주 사업은 카지노다. 정선 토착민들과 도박중독자들이 함께 사



는 곳이 강원도 정선 땅이다.

새일감리교회는 이사야 43장 19절 말씀을 받아 개척한 교회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강원도 정선은 첩첩산중에 있어 척박하게만 보인다. 아무런 비전도, 소망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땅이다. 곳곳에 불당과 산당들이 세워져 있으며, 거기서 비롯된 온갖 미신과 불교 문화가 자리 잡고 있다. 새일감리교회는 이런 땅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이 땅이 하나님의 땅임을 선포하고 있다. 지금까지 이 땅을 불법으로 점령하여 주인 행세했던 악한 영을 대적하며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을 하고 있다. 길이 없는 광야에 길이 생기고 마실 물이 없는 메마른 사막에 강을 내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으며 전진하는 중이다.

2. 개척 동기와 과정

필자는 강원도 정선에 올 것이라고 상상도 하지 못했다. 당시 감리교신학대학교 대학원 마지막 학기였던 나는 서울연회 마포지방에 있는 ‘산마루교회’(이주연 목사 담임)에서 서울역 노숙자들을 섬기는 사역을 하고 있었다. 대학원을 졸업하면 당연히 서울에서 수련목회를 하고, 부목회자로 섬길 거로 생각했다. 그러나 그것은 철저히 나만의 생각이었다.

당시 강원도 정선지방 충만한교회 김석기 목사님(현, 당진 탑동교회 담임)으로부터 정선에 강원랜드 카지노로 인해 힘들어하는 영혼들이 많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중독 회복자들과 함께 일하면서, 그 영혼들을 돌보면 어떻겠냐는 제안을 받았다.

대학원을 졸업한 29살에 무작정 강원도 정선 땅을 밟았다. 도박중독에서 회복된 사람들을 채용하고 돌보는 사회적 기업의 담당자로 있으면서 기관목회자로 일하려고 했으나 승인이 나지 않았다. 정선구역에서 목회자로서 사역하려면 개척을 할 수밖에 없었다. 지금껏 생각지도 않았는데, 어쩔 수 없이(?) 개척해야만 했다. 그러나 지금은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완벽한 섭리였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정선군 고한읍에 있는 요양원 건물 1층에서 사회적 기업과 교회를 같이 시작했다. 주중에는 도박중독 회복자분들과 열심히 일하고, 주일에는 그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둘 중 한 가지에 집중해야 한다는 마음이 들었고, 사업을 정리하고 교회에만 집중하기 시작했다.

하나님이 연결해주셔서 요양원에 계신 모든 어르신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 찬송가 하나만 부르려고 해도 한 분씩 찾아드리는 시간만 5분이 넘어갔고, 예배 중에 갑자기 대변을 보시는 등 예배드리기 어려울 때가 많았지만, 복음을 전하고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자체로 기쁘고 감사했다. 마침내 요양원 전체 어르신 13명이 영접하였고, 3명은 세례를 받으셨다. 그중에는 평생 절에 다니며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처음 들은 분도 계셨다.

그러다 '코로나19'가 터졌다. 요양원 건물에서 쫓겨나다시피 나와야만 했고 요양원 어르신들도 만날 수 없게 되었다. 무엇보다 당장 예배드릴 공간이 없었는데 감사하게도 교회 권사님이 운영 중이신 펜션을 임시로 내어 주셔서 그곳



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고, 현재는 펜션이 있는 그 땅에 임시로 천막 예배당을 지어 예배하고 있다.

3. 교회 현재 상황과 비전

현재 새일감리교회 예배당은 콘크리트 건물이 아닌, 비닐하우스로 만든 예배당이다. 단열과 방음이 취약하여 한겨울에는 바닥에서 한기가 올라와 발이 시리고, 방음이 되지 않아 마이크나 피아노 같은 악기와 음향 시스템을 전혀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주님! 언제까지 이런 예배당에서 뜨겁게 찬양도 못 하고, 통성으로 자유롭게 기도하지도 못하고, 마음껏 예배하지 못해야 합니까?!’ 2년째 기도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묵묵부답인 것처럼 느껴졌다. 몇몇 성도님들은 지쳐서 다른 교회로 출석하는 분들도 있다.

답답한 상황에서 기도할수록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세워진 그 땅과 그곳에 사는 권사님 가정을 축복하라는 마음만 주셨다. 당장 새일감리교회에 예배'당'이 생기는 것보다 하나님께 더욱 시급하고 중요한 것이, 그 땅에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회복시키는 일이었다. 임시 예배당이 있는 권사님 부부의 땅은 조상 때부터 대대로 산신령을 모시던 곳이었다. 그 가문에서 장손이 예수를 믿고 제사를 치워버리고 그 땅에 교회가 세워졌으니, 그곳을 오랜 세월 점령하고 있던 원수는 갖가지 이유로 우리의 예배와 기도를 약화하려고 방해하며 발악하는 것이다. 새일감리교회를 정선 땅에 세우신 이유, 번듯한 건물이 아닌 한 성도님의 땅에 비닐하우스로 임시 예배당을 만들게 하신 이유, 아무리 매물과 땅을 찾아 보아도 아직 마땅한 곳을 보여주지 않는 이유를 조금씩 깨달아가고 있다.

하나님이 경배와 영광을 받기 원하시는 땅은, 권사님 부부의 땅만이 아닐 것이다. 온 땅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원수 마귀는 하나님의 임재가 풀어져야 할 거룩한 땅을 불법 점령하여 수많은 영혼을 미혹하고 있다. 정선에는 불당, 산당, 점집을 세워 우상 숭배하게

만들고, 도박장, 마사지샵, 전당사, 술집 등을 통해 중독과 쾌락, 음란으로 이 땅과 영혼들을 멸망으로 끌어가고 있다.

새일감리교회의 비전은 하나님의 소유를 되찾는 것이다. 거짓 주인에게 빼앗긴 땅을 참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예배하여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땅이 되게 하고, 악한 영에게 종살이하는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여, 그들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 되게 하는 것이다.

4. 비전을 성취하기 위한 사역과 전략

새일감리교회 사역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하나님의 소유를 되찾는 것’이다. 되찾아야 할 하나님의 소유는 한 영혼일 수도 있고, 가정·가문일 수도 있고, 직장·사업장에 영적 주도권일 수도 있고, 지역의 문화나 다음 세대, 심지어 교회, 예배일 수도 있다.

이사야 66:1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1) 강원랜드 카지노 노방예배 및 전도

매달 첫째 주 토요일에 강원랜드 카지노 야외로비에서 노방예배와 전도를 한다. 강원랜드가 거룩한 하나님의 땅이 되기를 축복하고 거기에 오는 영혼들이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축복하며 복음을 선포하고 있다.

2) 도박중독 회복자를 위한 치유농장 프로그램

매년 4월부터 11월까지, 매주 화요일에 도박중독 회복자 30여 명과 함께 치

유농장을 진행한다.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씨를 뿌리고, 농작물을 기르고 수확하는 과정을 통해 만물을 소생케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애찬과 교제 가운데 자연스럽게 복음이 흘러 들어가도록 애쓰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생명사랑협의체’라는 비영리 법인단체와 협력하여 진행 중이다.

3) 강원랜드 신우회

강원랜드 설립 이래 처음으로 ‘신우회’가 만들어졌다. 강원랜드 디지털혁신팀에 근무하는 새일감리교회 청년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신우회를 만들어 기도회를 시작했다. 강원랜드는 카지노가 먹여 살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강원랜드 기업 산하에 있는 호텔, 워터파크, 골프장, 스키장 등은 매년 적자인데, 모든 적자를 카지노 수입으로 메꾸는 구조다. 강원랜드가 사람을 멸망시키는 기업이 아닌 사람을 살리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이를 위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카지노를 대체할 수 있는 사업 아이디어가 열리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 여러 직원이 기도회에 다녀갔으나 신우회를 시작한 우리 교회 청년만 꾸준히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 어둡고 타락한 영적 분위기에 눌러 신앙을 잃어가고 있는 강원랜드 안에 숨겨진 주님의 백성들이 예배자로, 기도의 용사들로 일어나는 것 또한 간절한 기도 제목이다.



4) 전도 및 양육

정선 땅에는 불교가 오랫동안 자리 잡고 있고, 거기에 카지노까지 합세하여 귀신 역사가 많은 곳이다. 최근에는 귀신들린 자매나 귀신에게 시달리는 영혼들을 붙여주시는데, 그들에게 꾸준히 복음의 빛을 비추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도록 인도하고 계신다. 신내림 곳을 여러 번 치른 자매를 만나게 하셔서 복음을 전하고 2주 동안 매일 그 가정에서 예배하며 귀신이 떠나가는 것을 경험하게 하였고, 그 자매의 가족들까지 구원의 문을 열고 계신다. 또한, 귀신이 보이는 탈북한 자매를 만나게 하셔서 양육을 시작하게 하셨다. 한 영혼, 한 영혼을 꾸준히 만나고 양육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배우게 되고, 각 영혼과 가정, 가문을 마귀가 얼마나 종살이시키며 괴롭히는지 영적 실체에 대해 더욱 정각심이 생겼다.

5. 마치는 글

개척 현장은 영적 전쟁터다. 전쟁터 속에 있는 군사는 긴장을 늦추거나 느슨해지면 안 된다. 항상 깨어있어야 하고 적에게 틈을 주면 안 된다. 늘 전신갑주를 입고 무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적이 공격해오면 즉각 방어할 수 있어야 하고, 적의 취약점을 정확히 파악하여 공격할 수 있어야 한다.

내게 개척교회 현장은 그런 곳이다. 한시도 방심할 수 없는, 적이 언제 공격해올지 몰라 적막한 긴장감이 흐르는 최전선에 있는 전쟁터와 같다. 그래서 만왕의 왕이시며 어둠과 죄와 사망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의지하지 않을 수 없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역사 하시기에 이미 승리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이며, 끝까지 그리스도만 의지한다면 곧 승리의 전리품을 취하여 간증하게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로뎀나무교회

황창수 목사

2011년 겨울 군부대교회 민간인 사역자로 부목사 사역하던 나는 군부대교회를 그만두고 다른 임지를 알아봐야만 했다. 교회 전체 양육 훈련을 담당하고 있었던 나에게, 몇몇 장로님들이 너무 힘들다고 그만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기 때문이었다. 창원과 대전으로 개척지를 알아보던 나는 개척할 준비가 아무것도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개척은 꿈도 꿀 수가 없어서, 가족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른 교회에 부임하여 부목사로 사역하는 수밖에 없었다. 인천성산교회 부목사로 부임했는데 처음 마음이 교만했다. ‘부목사로 배울 것이 뭐가 있겠는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앞으로 나아가면 되지, 무슨 목회를 배워야 한다는 거지? 사도바울도, 베드로도 목회사역을 배우고서 한 것은 아니잖나?’ 하는 교만한 생각이었지만, 부목사로 사역을 하면서 준비되지 않은 것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모든 목회사역이 기본부터 하나하나 배워야 하는 것들이었다. 하지만 부목사 사역 가운데서도 사라지지 않는 마음이 하나 있었다. 그것은 바로 개척해야겠다는 마음이었다. 결국, 개척할 교회를 찾다가 인천성산교회의 지원으로 개척교회와 같은 작은 교회에서 시작하게 되었다.

1. 로템나무교회는?

내가 2019년도에 부임한 경기도 이천의 로템나무교회는 2010년에 상가 4층에서 개척된 교회였다. 건물이 25년도 넘었기에 낡고 허름했지만 1,110세대의 단독 아파트 단지과 SK하이닉스가 인접해서 전도할 대상자가 많이 있는 것을 보고 큰 기대와 부푼 꿈을 안고 부임했다. 부임할 당시 교회는 성인 10여명 어린이 10여명 정도 출석을 했다. 적은 인원이지만 개척하는 것으로 여기면 아주 좋은 시작이라고 여겨졌다. 코로나가 지난 지금은 많은 분이 전도되어 예배 인원 30명, 어린이 15명이 출석하여 예배를 드린다. 2019년 당시의 결산과 비교할 때, 3년 만에 약 2.5배 정도 성장했고, 지금은 날마다 성도들을 강한 주님의 일꾼으로 자라가게 하시는 매일의 은혜를 누리며, 주님 안에서 행복한 목회사역을 해 나가고 있다.

2. 개척 동기와 과정

2019년에 성도들 중 말씀으로 양육을 받고 일꾼이 될 것을 기대하며, 본격

적으로 시작할 목회계획을 수립했다. 그러나 사람이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할 지라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2020년 시작된 코로나가 앞으로 나아가려는 나의 발목을 꺾어버리는 것만 같았다. 큰 교회도 성도들이 예배당에 나와 출석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였겠지만, 작은 교회는 작은 공간에서 예배드리 는 것이 더 큰 부담으로 여겨졌다. 성도들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며, 온전한 믿음으로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었고, 나아질 생각을 하지 못했다. 코로나가 지나가면서 1년 반 정도가 지났을 때는 내 믿음도 이전과 같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전에는 자신감이 충만했고, 어떤 사역이든 감당이 될 것만 같은 생각이 들었는데, 코로나가 지나가면서 교회는 정체되고 오히려 퇴보하여 미자립 교회가 되면서, 나는 더이상 잘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실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그냥 이대로 머물며 미자립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패배의식과 절망감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자신의 한계를 벗어나야 한다는 말씀을 듣게 되었다. 사람은 자신이 그어놓은 한계 그 이상을 뛰어넘지 못한다는 것이었다. 그때 스스로 나 자신이 성장의 한계를 긋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 말씀을 듣는 그 날 나는 즉시 나의 한계를 벗어던지기로 다짐했다. 하나님이 주시는 더 높은 꿈을 꾸고, 더 높은 목표를 설정하기로 다짐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자신감과 믿음이 회복되었다. 그리고 그 해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로 성도들을 보내주시기 시작했다. 성도들은 나와 함께 말씀으로 양육을 받고 전도하면서 복음 중심의 신앙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3. 비전과 전략(교회론과 목회철학)

나는 신대원을 다니던 시절 청년목회를 하면서 청년들이 변화되지 않는 모습들을 보았다. 3년 동안 예배도 드리고, 성경 공부도 하고, 삶을 나누면서 좋은 시간을 많이 보냈지만, 청년들은 3년 동안 변하지 않았다. 나는 충격을 받았다. 내가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청년들은 왜 변화되지 않을까? 크게 고민이 되었다. 그러던 중 제자훈련을 알게 되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제자훈련이 사람을 세우고 믿음이 성장하도록 돕는 최고의 방법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사도 바울도 한 사람을 세우는 비전에 대하여 이렇게 고백했다.

골로새서 1:28~29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나는 사도바울이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 수많은 교회를 세운 것이 그의 목표였고 비전이라고 생각했는데, 바울은 각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 그것을 위해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것이 바울의 비전과 목표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앞으로 나의 비전도 ‘각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이 되어야 하고, 그것을 위해 힘을 다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나는 실제로 로템나무교회에서 성도들과 함께 양육과 훈련을 하면서 놀라운 변화와 성장을 보게 된다. 예배 중 설교로는 얼마나 변화되는지 알 수 없지만, 성도들과 양육과 훈련의 시간을 함께 보내며 그들이 얼마나 변화되고 성장하는지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장로님 한 분은 양육의 시간 중에 여러 번 고백하기를, 이제까지 신앙생활하며 이런 것을 배워본 적이 없었다고, 이런 것은 교회가 가르쳐야 하는 본질인 것 같다고 말했다. 더 나아가 이제까지 전도하는 것에 힘쓰지 못했음을 고백하며 힘써서 기도하고 전도하시겠다고 나섰다.

우리 교회 한 권사님은 처음에 가정마다 열리는 전도모임을 참석하며 이런 것을 왜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이해가 안 된다고 하셨다. ‘또 교회를 옮겨야 하나?’ 하는 생각으로 양육을 받다가 1년 만에 마음과 생각이 변화되면서 이런 전도모임은 꼭 필요하다고 고백하고, 직장 동료 2명을 전도모임에 초청할 정도로 달라졌다. 양육도 받지 않겠다고 하다가 어쩔 수 없이 양육을 받으면서 1년이 지난 시점에서는 이제는 유튜브 시청할 시간에 말씀을 묵상한다고, 자신의 달라진 삶을 고백했다.

우리 교회 한 집사님 부부 가정은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오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라고 했다. 주중에 아내가 셀 모임에 참석하거나 금요기도회에 참석하여 늦게 들어오면 화를 내고 부부싸움을 하는 일이 많이 있었다. 남편이 직장에서 퇴근했는데 아내가 집에 없으면 화를 내곤 했다. 여자 집사님은 주중에 교회에서 하는 것에 마음껏 참석할 수가 없었다. 그러던 중 언니 가정이 양육을 받겠다고 하는 것을 보고 우연히 양육을 신청했다가 참여하게 되었는데 부부관계가 완전히 달라졌다. 집사님 부부는 양육이 끝나면 집에 돌아가 식탁에서 곧바로 다음 주 숙제를 했다. 언젠가 아들이 지나가다가 물었다. “엄마, 아빠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에요?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집사님 부부는 함께 숙제하면서 처음으로 함께 신앙적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고, 남편 집사님은 직장생활에서 예수님을 전하며 전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 이제 아내가 교회 모임에 갔다가 늦게 들어오면 “벌써 끝났어?”하고 물을 정도로 완전히 달라졌다. 1년도 안 되는 양육의 과정에서 일어난 변화다.

그래서 나는 목회하는 것이 기쁘고 즐겁다. 일반적인 목회에 더하여 양육과 훈련, 전도모임을 다니고, 목회 이외의 다른 것을 할 여유가 전혀 없이 힘과 시간을 많이 들여야 하는 목회를 하고 있지만, 과연 이것보다 더 보람 있는 목회가 있을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변화와 성장, 굳건한 믿음으로 세워

지고, 일꾼이 세워지는 양육훈련의 목회를 하면서 기쁘고 행복한 목회를 할 수 있음에 감사하다.

4. 교회의 사역

1) 사역 정의 : 나의 사역은 각 사람을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우는 양육과 훈련이다.

우리 교회 사역은 양육과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일꾼을 세우는데, 그 일꾼은 전도할 수 있는 일꾼, 셀리더의 역할을 감당하는 일꾼, 선교사역을 감당하는 일꾼을 세우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핵심 사역 세 가지 요약

먼저, 우리 교회는 양육훈련으로 기초훈련, 사역훈련을 한다.

경험상 주일 날 예배 시에 이루어지는 설교 말씀으로는 눈에 보이는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신앙 생활한 지 20년, 30년이 지나도 여전히 자기중심적인 신앙이 잘 변하지 않는 경우를 많이 보았다. 그러나 양육훈련이 사람을 얼마나 빠르게, 또 정확한 일꾼으로 성장시키는지, 양육해본 사람만이 알 수 있다.

두 번째, 우리 교회는 대그룹 예배와 소그룹 셀가족 모임을 중심으로 모인다.

온 교회 성도들이 함께 대그룹으로 모여 예배드리는 것의 중요성은 말하지 않아도 모든 사람이 안다. 그러나 소그룹 모임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사람이 많다. 소그룹 모임은 대그룹 모임보다 더 견고하고, 건강하게 교회를 세워주는 기초공동체다. 소그룹 모임의 중요성을 안다면 양육과 훈련의 과정에서 소그

룹의 중요성과 방향과 방법에 대한 반복적인 말씀의 가르침이 있어야 한다.

세 번째, 우리 교회는 전도 소그룹 가정모임으로 전도한다.

전도 중에서 가장 탁월한 전도는 관계전도다. 우리 교회는 가정마다 여러 개의 전도모임을 구성하여 매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10주간 전도모임을 한다. 성도 2~3명이 한 팀이 되어, 그들 중심으로 전도대상자를 가정으로 초청하고 복음의 말씀을 전한다. 그들은 처음부터 교회로 직접 전도되어 서먹서먹하게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이미 여러 차례 모인 사람들이 얼굴을 익히고, 때가 되면 교회로 초청하여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된다. 그 전도대상자는 교회는 처음 왔지만 이미 가정에서 만나 아는 사람들과 반갑게 인사하게 된다. 전도대상자를 맞이하며, ‘어서 오세요. 처음 뵙겠습니다.’가 아닌, ‘어머! 너무 반가워요. 잘 지냈어요?’ 하고 인사하면서 교회에 자연스럽게 정착하게 된다. 어떤 교회성장학자의 이론에 의하면 교회에서 6명이 자신과 반갑게 인사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은 교회에 정착된다고 한다. 우리는 각 가정에서 전도모임을 통해 전도하고, 교회로 인도함으로 정착률을 높이고 있다.



5. 초기 전도 / 핵심 멤버 세우기

우리 교회는 전도부터 핵심 멤버 세우는 모든 과정이 양육과 훈련을 통해 이루어진다. 전도 소그룹 모임을 위해서 반복적으로 양육훈련하고, 교회의 모

든 성도가 양육을 받으면서 자연스럽게 전도모임에 참여하게 된다. 양육과정에서 전도모임에 참여해야 하는 숙제를 내주고, 숙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감점 누적으로 이전 양육과정으로 다시 돌아가야 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므로, 성도들은 숙제하기 위해서라도 전도모임에 참석한다. 그 과정에서 전도의 중요성과 가치를 깨닫고, 자연스럽게 전도중심의 삶을 살게 된다.

양육의 단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리더십에 대한 훈련이 강화된다. 우리 교회는 궁극적으로 선교를 목표로 한다. 나가든지 보내든지 선교적 삶을 사는 것을 목표로 한다. 청년들은 단기선교로 1년을 하나님께 드리며 헌신하도록 권유하고, 그것이 교회의 영적 분위기가 되도록 안내하고 있다. 아직은 청년으로 자라난 경우가 없지만, 지금 양육하는 청소년들에게 권면하며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헌신하도록 지속적으로 제안하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

6. 마치는 글

아직 우리 교회 정식 비전으로 내세우지는 않았지만,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 일꾼에 대하여 꿈꾸고 기도하는 비전은 매우 크다. 3천3백 세계비전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비전이다. 3천 명의 셀리더, 3백 명의 장단기 선교사를 세워 하나님 나라에 이바지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다. 너무 허황되다 하지 말라. 비전은 한 걸음 한 걸음 이루어가는 것이다. 각 사람을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 나가기를 힘쓸 때, 사도바울이 온 유럽을 복음화했던 것처럼, 한 사람씩 세워 나가다 보면, 어느덧 3천 명의 셀리더, 3백 명의 선교사가 세워져 있음을 보게 될 줄 믿는다.

세움교회

김종범 목사

누가복음 4:18~19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제주는 지리적으로 우리나라의 땅 끝이며, 영적으로는 최전방이다. 그리고 제주 4.3 사건의 아픔이 있는 땅이다. 그 어느 지역보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필요한 세움교회가 세워졌다.



1. 세움교회는?

세움교회는 2017년 7월 14일, 제주도 표선면에 세워진 교회다. ‘굴 창고’가 있는 단독주택을 임대하여 주택은 목회자의 사택과 교회학교 교육관으로, 창고 공간은 교회로 꾸며 예배하고 있다. 현재 담임으로 사역하고 있는 김종범 목사는 2022년 6월 세움교회 제2대 담임목사로 부임하여 교우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다(고린도전서 4:20)”라는 표어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실현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중이다.

2. 부임하게 된 과정

제주의 한 교회에서 후임자를 찾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일 년 임대료 구백만 원, 보고된 일반회계 결산 약 천만 원, 10명 정도 모여서 예배하는 개척교회. 기도 중 하나님의 강한 부르심이 느껴져 순종하고 내려간다고 했을 때 많은 사람이 말렸다. 진심으로 생각해서 해준 조언이었지만 사람의 조언이 아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기로 했다.

3. 예상했던 것보다 빨리 찾아온 위기

목요일에 제주에 입도하여 금요일, 토요일 성도들 심방을 하고 첫 주일에 배를 드린 저녁 건물주에게 전화가 왔다. “내놓은 집이 팔리지 않으니 십자가와 간판 내리시죠” 마른하늘에 날벼락도 이런 날벼락이 없을 것 같았다. 꿈과 소망으로 가득한 첫 번째 주일이었다. 복음이 필요한 이 땅에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싶었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뜯어말린 사람들의 말을 들

있어야 했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교회를 세워갈 땐 반드시 위기가 찾아온다는 이야기들을 들었지만, 이렇게 빨리 찾아올 줄은 몰랐다. 집주인에게는 “내가 ‘제주살이’하러 내려온 것도 아니고 목회하러 왔는데 어떻게 십자가를 내리느냐고, 계약 기간까지는 못 내린다”고 강하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지만 혼란스러웠다.

바로 다음 날부터 동네 부동산을 돌아다녔고, 인터넷 부동산 관련 사이트 이곳저곳을 뒤졌다. 그러나 표선에서는 ‘제주 제2공항 이슈’로 모아놓은 재정이 없는 개척교회가 땅값도, 건물 값도, 임대료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이 비싸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정신없이 한 달 정도가 지났을 때,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다. “목사님 잠깐 와보시죠.” 지역에 있는 다른 교회를 섬기는 권사님께서 하시는 부동산이었다. 집주인이 건물가격을 내렸는데 이 가격에는 팔릴 수도 있으니 대비를 하라고 말해주었다. 거짓말같이 바로 다음 날부터 사람들이 집을 보러 오기 시작했다. 계약서에는 건물주가 바뀌게 될 경우, 3개월 안에 공간을 비워준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진짜 쫓겨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4. 위기를 기회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다. 모아놓은 돈도 없었고,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 대출을 받는다고 해도 이자를 감당할 수 있는 형편이 못되었다. 신기한 것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음을 깨달으니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다.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기도회를 열어 기도하며 교우들에게 선포했다. “하나님께서 하셔야 할 일, 우리가 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우리가 할 일 합시다. 우리가 우리 할 일 하면, 하나님께서도 하나님께서 하실 일 하지 않겠습니까?” 그때부터 성도들과



함께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지를 고민했고,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나씩 해 나아갔다. 예배하는 일, 성경을 공부하는 일,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 전도하는 일, 교제하는 일, 그리고 사랑과 섬김으로 선교하는 일.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제주와 표선 땅을 보게 하셨다. 제주의 복음화율은 10%가 넘는다고 하지만 육지에서 이주해온 기존의 성도들을 제외한 원주민들의 복음화율은 2%가 안 된다. 도민들은 이주해온 사람들을 ‘육지것들’이라고 부르는데 제주 4.3 사건 이후, 도민들은 육지사람(이방인)들에게 마음의 문을 쉽게 열지 않는다. 기독교에 대한 반감도 상당하다. 또 교회가 위치한 표선면은 해안지역의 특성을 모두 갖고 있는데 거리에는 유흥주점으로 가득 차 있고, 우상을 숭배하는 가정들도 많다. 교회가 있는 바로 옆 마을은, ‘마을 우상’이 따로 있을 정도이다. 매주 거리로 나가 복음을 전했지만, 열매가 쉽게 맺혀질 것 같지 않았다. 오늘날 대한민국 땅에 복음 전도가 쉬운 곳은 물론 없겠지만, 그럼에도 제주는 그 어떤 지역보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려운 땅임을 깨닫게 되었다.

제주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제주의 다른 특징을 보여주셨다. 제주에는 육지에서 이주해온 분들이 많다. 완전히 이사해서 이주해온 분들도 있지

만, 한 달, 두 달, 일 년, 제주살이를 위해 온 분들도 많다. 육지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성도들은 제주에서 새로운 교회를 찾는다. 또한, 제주에는 1년 내내 여행객이 찾는 국내 최고의 여행지 중 하나인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성도들은 여행을 와서도 교회를 찾아와 예배를 드린다. 기회가 될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5. 교회를 세우다

원주민 전도가 어려우니, 우선 교회를 찾는 사람들이 찾아오는 교회가 되고자 했고, 제주도에서도 시골에 있는 표선에 있는 작은 교회를 어떻게 알릴 수 있을까 고민했다. 네이버 블로그, 유튜브, 인스타그램을 모두 운영했다. 블로

그에는 목회 철학을 게시했고, 매주 온라인 예배 영상을 따로 만들어서 유튜브에 업로드하고 있다. 예배하는 모습, 성경을 공부하는 모습, 교회학교 어린이들이 교육 놀이를 하는 모습까지 교회의 중요 행사뿐만 아니라 소소한 행사들까지 인스타그램을 통해 공유했다.



교우들과 함께 우리 할 일을 하며 공동체를 세우며, 온라인을 통해 그 과정을 공유했더니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다. 제주로 이주 와서

새롭게 교회를 찾는 사람들, 여행에 와서 예배드릴 곳을 찾는 사람이 찾아오기 시작했다. 올해(2023년) 세움교회를 찾아온 성도님들의 90% 이상은 온라인 게시물을 보고 찾아왔다.

6.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다

공동체가 세워지니 많지는 않지만, 선교에 재정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2022년 8월 갑작스럽게 내린 폭우로 많은 사람이 피해를 보았을 때, 교우들과 함께 특별헌금으로 오십만 원을 모아 이웃들을 섬겼는데, 바로 다음 주 그 계좌로 칠십만 원이 입금되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을 했을 때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경험했고, 그 이후로는 기회가 될 때마다 적극적으로 지역사회를 섬기기 시작했다. 추수감사절에는 지역에 취약계층 이웃 30가정에 월동비와 비상 음식을 지원했고, 성탄절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세움교회는 재정적으로 자립을 이루지 못한 교회이고, 아직도 교회 재정으로 목회자의 사례를 책정하지 못했지만, 제주지역 더 어려운 교회에 매달 선교헌금도 보내고 있다.

그렇게 한 해를 마치자, 세움교회를 정기적으로 후원해주시겠다는 교회와 성도님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결산의 대부분을 임대료로 써야 하는 교회에서 지역사회를 섬기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반대하는 교우들도 있었다. 큰 결단이 필요했다. 그러나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눌린 자에게 은혜의 해를 전파하는 일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뿐 아니라 우리가 흘려보낸 것 이상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때마다 경험했고, 이제는 모든 교우가 기쁜 마음으로 선교하는 일에 힘을 보태고 있다. 이제는 면장님도, 마을의 청년 회장님도, 각 학교의 교장 선생님도 모두 아는 교회가 되었다.

잠언 19:17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7. 새로운 예배의 처소로

10평밖에 되지 않는 작은 예배당이지만 감사하게도 예배당이 성도님들로 차게 되었고, 이제 세움교회는 새로운 예배 처소로의 이전을 앞두고 있다. 십자가와 간판을 내리고 쫓겨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더 넓은 공간으로 이전하게 되었다. 이전하게 되는 공간 역시 여전히 임대 공간이고, 이전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할 일을 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하실 것’이라 믿는다.

이제 세움교회는 이전보다 더욱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 집중하고, 사랑으로 사람을 세우며, 나눔과 섬김으로 제주와 표선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교회가 되길 꿈꾸며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디딘다.

고린도전서 4:20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예임교회

곽형석 목사

코로나 시대에 부흥하는 교회, 코로나 시대에 더욱 뜨겁게 예배하며 갈급함으로 24시간 예배와 기도를 이어가는 교회, 목사와 성도들의 눈물로 만들어간 교회의 성령행전이 펼쳐지는 교회, 예임교회는 그런 교회다.

1. 예임교회?

서울시 광진구 아차산을 품고 큰 대로인 용



마산로를 가운데 두고 좌편에는 중곡동 정신병원으로 유명한 국립정신건강센터가 있다. 우편으로는 초등학교 1개, 중학교 2개, 고등학교 3개가 한 줄로 쭉서 있다. 학교로 올라가는 길가에 60평 되는 상가건물, 원단공장으로 사용되었던 지하 1층을 보증금 500에 월 60만 원으로 임대하면서 예수님이 임재하시는 예임교회가 시작되었다.

2. 개척동기와 과정

나는 대학원을 졸업하고 2010년 3월, 호평에 있는 교회에 인턴전도사로 부임하였다. 그리고 2개월간 부교역자로 열심히 생활하며 기도하던 어느 날, 하나님은 교회 개척에 대한 생각을 밀어 넣어 주시더니, 이튿날에는 그 생각에 불을 붙여 기도하게 하였고, 셋째 날에는 기쁨으로 교회 이름을 기도하며 정하고 있었다. 부임해 온 지 2개월밖에 안 된 전도사가 목사님께 개척에 대해 말씀드린다는 것이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개척으로의 부르심을 말씀드렸을 때 목사님께서도 흔쾌히 용인해 주시고 개척에 대해 그림을 구체적으로 그려볼 수 있도록 조언과 기도를 아끼지 않으셨다. 저녁마다 교회 자리를 알아보는 2주 만에, 서울 광진구 중곡동에 교회임대를 해주겠다는 건물주를 만나

어둡고 좁은 계단 아래에 자리한 원단공장, 예배가 없던 지하 1층 그 자리를 얻어 가족에게 빌린 천만 원으로 500만 원 보증금 내고, 500만 원은 간단하게 인테리어를 하여 그 해 2010년 5월 29일 창립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 뒤돌아보면 모든 것



이 은혜이다. 그중 예배의 자리를 허락하시고 지금까지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큰 은혜이자 감사이다.

“여름 성경학교를 해야 한다…” 개척한 지 2달이 되던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이 강하게 들려왔다. ‘내 자녀들 말고는 없는데… 어찌나’ 순간 걱정이 되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이들이 몇 명이 오든 상관없이 하나님께 순종하여 드리는 내 믿음을 요구하셨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창립예배 드릴 때 모아둔 헌금을 털어 빔프로젝터를 사고, 전도지를 사고, 간식을 준비했다. 그리고 선생님 한 분과 아내와 함께 토요 전도, 평일 전도를 나가 아이들을 만나 전도하며 여름 성경학교를 홍보하기 시작하였다. 전도를 처음 할 때는 교회 바로 위에 학교가 있는지도 몰랐다. 지나가는 많은 아이들에게 전도만 할 뿐. 근데 알고 보니 우리 교회 길목 위로 초중고등학교가 6개가 있고 국제중과 외고까지 있는 곳이었다. 우리는 전도하고 기도하고, 기도하고 전도했고, 이후의 일들은 하나님이 하셨다. 첫 여름성경학교 2박 3일 동안 아이 24명이 전도되었다. 참으로 감사했다. ‘아 나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일에 순종만 하면 되는구나!’ 머리로만 알던 것이 가슴에서 삶으로 체험되었다. 이 일이 있은 후, 학교에 안 가고 골목에서 방황하며 숨어있던 중고등학생들이 전도지를 받고 교회로 찾아오기 시작했고, 개척 1년 반 되던 해, 어느 날 중학생 아이들이 30명씩 한 번에 와서, 동네 경찰까지 순찰하러 오는 웃지 못할 사건이 생겼다. 우리의 중고등부 사역은 이렇게 시작이 되었다.

평일 이름 아침부터 새벽 2~3시에도 교회 문 열어 달려오며 오는 아이들에게 라면과 볶음밥과 교회 장소를 내어주며 그 아이들을 먹이고 재웠다. 문제 있는 아이들의 학교, 병원, 경찰서에 쫓아다니고, 오전과 낮에는 샌드위치랑 빵튀기를 준비하여 학교 앞에서 아이들에게 나눠주었다. 학교 수업이 끝나는 시간에는 라면을 20개씩을 끓여놓고, 먹으러 온 아이들에게 볶음을 전했다. 시험 공부도 같이하고, 숙제도 알려주며 주일예배에 나오도록 인도했다. 이렇게 한 해, 또 한 해 흘러갔고, 매년 새로운 아이들 200여 명이 들락날락했다. 이 아

이들과 무엇을 했는지는 교회 핵심 사역 부분에서 자세히 나누도록 하겠다.

개척예배를 드리고 한 달 되었을 때, 수요일예배 준비를 하고 있는데, “또각 또각” 지하교회를 향해 내려오는 구두 소리가 들렸다. 문이 열리고 한 자매가 들어왔는데, 이전에 섬기던 교회의 부장교사였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로 가라고 꿈꾸게 해주셔서 기도하고 왔다고 하며, 4만 원을 십일조 봉투에 담아내고 함께 수요일예배를 드렸다. 우리에게 첫 성도가 생긴 것이다. 그날 얼마나 감사했는지... 첫 성도의 4만 원은 4백만 원보다, 4천만 원보다 귀했다. 지금 그 자매는 우리 교회 선임 전도사가 되어 10년째 사역을 하고 있다. 첫 성도로 교인등록을 하고 일주일이 되던 12월의 주일, 사회복지관에서 일하던 첫 성도를 따라 5명의 초등학생 아이들이 와서 예배를 드렸다. 그동안은 우리 세 자녀를 데리고 2시 예배로 드렸었는데, 이날 이후로 1:30분 예배를 교회학교 공식예배로 지정하고 교회학교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

3. 비전과 전략(교회론과 목회철학)

내 비전은 예배이고, 전략도 예배이다.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예배를 드리길 원하고, 오직 24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길 원한다.



1) 교회론

하나님이 독생자 아들 예수그리스도를 내어주심으로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 그곳이 바로 예임

교회이며, 예임교회는 예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다.

2) 목회철학

오직 하나님 예배, 오직 예수님 사랑, 오직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구하며 구령열, 기도열, 헌신열에 불타는 교회 되는 것이 나의 목회철학이다.

4. 교회의 사역 / 초기 전도 / 핵심 멤버 세우기

1) 예배자로 세우기 위한, 성경골든벨 말씀 공부, 제자 양육, 학교공부와 어학공부

2010년 12월 둘째 주에 첫 성도이자 첫 교사를 통해 아동부 친구들 다섯 명이 전도되어 교회학교 아동부 예배가 처음 시작되었다. 매주 기쁨과 설렘으로 아이들의 예배를 준비하고 주일이 되면 아이들과 전심을 다 해 뛰며 하나님께 예배드렸다. 하나님께서는 교회학교 아동부 예배를 받아주셨고 그 후로 중학생, 고등학생이 전도되어서 중고등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셨다. 그리고 한 명 한 명 교회 문을 두드리는 헌신된 청년들이 예배의 회복을 꿈꾸며, 사역에 동참하기를 소망하는 자들이 늘어가기 시작했다. 하나님께서는 오전 뽕튀기 전도, 교회 재적 학생 방문, 샌드위치 전도, 오후와 저녁 라면, 볶음밥 전도를 통해 가정에서 사랑받지 못하고 학교에서 소외당한 많은 청소년을 만나게 하셨다. 소망 없이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복음이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학교로, 집 앞으로... 아이들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찾아가 복음을 전하고 아이들을 위해 기도의 씨앗을 뿌렸다. 때로는 아이들이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이기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했고 믿음이 좀 자라는 듯하다가도 곧 무너져 세상 속으로 달려가 버릴 때도 있었지만, 복음의 능력은 그 아이들의 삶을 변화시켰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새로운 삶을 찾았다. 제대로 믿음 안

에서 뿌리를 내리려면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하기에 나는 아이들이 모일 때마다 성경을 가르쳐주었다. 들어본 적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아이들은 점점 믿음이 자라났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방법을 배웠다.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가르쳐주던 말씀 공부를 통해 말씀의 즐거움을 알게 된 아이들은, 점차 성경골든벨대회에서도 입상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시작된 성경공부는 지금도 교회학교 학생들의 믿음을 든든히 세워주는 귀한 통로가 되고 있고, 아이들의 영혼을 관리하고 예배자로 세우기 위해 1:1, 다대일로 제자 양육을 하고,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학교공부까지 과목별로 가르쳐주게 되었다.

2) 예배자로 세우기 위한, 악기교육(관현악, 실용음악), 찬양대 조직 및 운영

교회에는 언제 찾아올지 모를 아이들을 위해 언제든지 내가 있어야 한다는 감동을 성령님께서 주셨다. 지하교회에 들어오는 발걸음이 가볍도록 불도 늘 복도부터 켜놓고 찬양 소리, 악기 소리가 계속 흘러나가게 하고, 실내 향기도 30분 분사기를 사용해서 바깥까지 향기가 나가도록 밤이나 낮이나 유지해 나갔다. 나중에는 이 어린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만 오면 너무 편안하고 지하 같지 않고 좋은 향기가 난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하며 좋아했다. 교회에 방문하는 모든 어린 성도들을 반갑게 맞이하고, 항상 배가 고픈 성도들에게 먹거리로 배불리 먹이자 교회를 자신들의 아지트로 삼아 새로운 멤버들을 계속 데리고 왔다.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나는 만큼 부모님께도 말씀드리지 못했던 마음의 아픔들과 상처들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자연스럽게 삶의 양육과 함께 천국 복음을 전하였고, 교회 안에 있는 악기들을 가르쳐주었다. 놀기만 좋아하고, 게임만 했었던 아이들이 악기를 잡기 시작하니, 신기하게도 엄청난 집중력과 흥미를 보였다.

‘똥똥똥’ 그때부터 교회 안은 더욱 시끄러워졌다. 이곳저곳에서 악기 소리와 찬양의 소리가 가득해졌다. 한두 곡씩 찬양을 배우던 아이들은 각자 맡은

악기를 들고 한 곡씩 한 곡씩, 합주하는 재미를 느꼈다. 한 곡이 두 곡이 되고 한 시간, 두 시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찬양을 연주했다. 그리고, 비로소 예임찬양단이란 이름으로 예배를 인도하는 날은 오고야 말았다. 악기를 들고 찬양을 하며 예배를 하기 시작한 예임찬양단은 본격적인 여름수련회 준비에 들어갔다. 찬양 콘터를 짜고, 악기팀과 싱어팀으로 나누어 매일매일 밤늦도록 연습을 시켰다. 아이들은 더욱 찬양과 예배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졌다. 그렇게 예임교회의 첫 수련회가 다가왔고 찬양과 말씀, 그리고 뜨거운 기도로 이뤄진 하모니는 무척이나 감동적이고 감격스러웠다. 수련회를 통해 아이들은 방언을 받아 기도의 깊이가 깊어지고, 더욱 예배자다운 연주자들이 되었다. 그때 수련회에 참석했던 아이들은 지금까지 함께하는 일꾼들로 크게 성장하여 귀한 동역자들이 되었다. 그 이후로는 더 많은 예배자들이 끊임없이 세워졌다. 제자가 제자를 낳고, 또 다른 제자가 다음 제자를 가르쳤다. 그리고 정예의 멤버로 매 예배마다 예배팀이 구성되었다.

3) 예배자로 세우기 위한, 매일전도대(일명 교수나:교회를 위해 순교하는 자들을 위한 모임)

개척하고 2개월 뒤, 세 자녀와 사모 말고는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여름성경학교에 대한 비전을 주시고, 이에 순종함으로 나아가자 하나님은 그분의 사역을 나를 통해 이루기 시작하셨다. 어느 날 오후 혼자서 교회 본당에서 기도하며 찬양하며 앉아 있는데 아이들의 재잘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기타를 내려놓고 밖으로 나갔다. 엄청난 인원의 아이들이 하교 후 대이동을 하고 있었다. 이게 무슨 일인가. 며칠 전 꿈꾼 꿈이 생각이 났다. 꿈속에서 나는 교회 앞에서 물고기들을 그물로 한가득 낚아채고 있었다. ‘아 그 꿈이 바로 이것이로구나.’ 나는 바로 전도지 한 장 없으나 아이들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다. 교회가 있음을 알리고 언제든 찾아오라고, 피자 사준다고 힘든 일 있으면 오라고... 요즘 전도 나가면 사람들이 말한다. 중고등학생 무섭다고, 가장 전도하기 힘든 미전도종족이라고... 처음엔 나도 그랬다. 그러

나 나는 이제 확실히 알고 말할 수 있다. 어느 누구보다 전도하기 쉽다! 왜냐면 그들 속은 공허로 가득하기에 무엇이든 채우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전도? 이 아이들에게 확실한 구원기차표를 줄 수 있고, 이 아이들은 모두 받길 원한다. 아무도 설명해 주지 못하는 그 공허를 아이들은 채우고 싶어 하니까. 이에 마귀들이 아이들 속에 가라지를 심어버리기 전에 우리가 달려가 복음의 씨앗을 뿌려 아이들의 땅을 점령해버려야 한다. 이 땅은 하나님 땅이니 손대지 말라고! 선포해야 한다. 이렇게 전도하기를 일주일도 안 되어 아이들이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오기 시작했다. 아이들은 혼자서 절대 안 온다. 둘이든 셋이든 같이 온다. 한 명한테만 잘 설명해 놓으면 줄줄이 엮어서 들어온다. 그러다 어느 날 교회 앞에 30명이 몰리는 바람에 경찰이 출동하는 일이 생겼다. 나는 혼자서는 이 아이들을 감당할 수 없었다. 그래서 전도된 고등학생들과 두 명의 선생님과 함께 교수니 전도대를 만들었다. ‘교수니’는 교회를 위해 순교하는 자들의 모임이었고, 이 모임에는 학교 하교 시간 이후, 저녁과 밤까지 시간이 되는 모든 사람은 와서 활동할 수 있었다. 먼저 전도된 고등학생 아이들은 보조교사였다. 이 교수니 사역이 오늘 우리 교회의 밑바탕이고, 전체를 지탱해주고 있으며, 지금도 평일 새벽부터 밤 2시까지, 그 이상 열려있는 교회가 되었다.



교수니 전도대팀은 전도 물품으로 가장 싼 빵튀기를 대량 구입했다. 작은 봉투는 교사개인이 헌신으로 사고, 봉투마다 나눈 빵튀기를 들고 아침에 학교 앞으로 나갔다. 오후에도 나갔다. 야자가 끝나는 밤도 나갔다. 특별히 우리 교회 아이들을 위해서는 샌드위치를 만들어 아침마다 아이들의 안위를 살피며 나누어주었다. 그 샌드위치 때문에 정이 고픈 아이들이 그걸 보고 또 전도되었다. 없는 중에 전도하기를 힘쓰면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신다. 지인을 통해 쌀이 들어오고, 라면이 박스로 들어오기 시작했다. 이때부터 학교 시간 맞춰 학교 앞에서 라면 쿠폰을 나누어 주고, 교회에서는 쿠폰 가지고 들어오는 아이들에게 라면을 제공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약기 들려주고 쳐보게 하고 게임을 하며 교회 안에 머물게 했다. 저녁이면 밥을 차렸다. 볶음밥, 된장찌개 등등. 하루 동안 놀던 아이들이 배고파 숟가락을 들고 덤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언제든 찾아오고, 주일예배에 친구들 전도해서 데리고 들어오는 아이로 변화된다. 이렇게 평일 사역을 통해 주일예배로 아이들을 연결하며 함께 연합하여 교수님들 사역을 이루어 나가고 있다. 지금도. 앞으로도.

5. 마치는 글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다. 하나님의 일을 돕는 동역자로 우리를 부르셨다. 우리는 그분의 일에, 그분이 우리를 필요로 하실 때 순종하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이 땅의 복음화, 교회의 부흥을 실질적이고 아주 구체적인 방법으로 이루어 나가신다.

그러기 위해, 개척목회자들이여! 세상에 나가 세상의 소리를 듣지 말라. 주의 전에서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길 바란다. 굶기시면 굶고, 먹이시면 먹고, 춥게 하시면 추위 속에 기도하고, 덥게 하시면 더운 중에 찬양하길 바란다.

개척목회자들이여! 전도하라. 우리에게 주지 않은 영혼은 이 지구상에 없

으며, 우리가 동쪽에서 전도하면 서쪽에서 사람을 보내주시고, 우리가 남쪽에서 전도하면 북쪽에서 사람을 보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다.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이 교회를 향한 몸부림을 보지 않으시는 것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라.

개척목회자들이여! 예배하라. 예배에 사활을 걸어라. 오늘도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시고, 우리 목회자들을 먼저 예배자로 만드셨으니, 우리는 예배하면 된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세우신 곳에 사명의 자리에 서 있는 그 종을 통해, 마른 땅에 샘물 나게, 광야에 길이 나게 하실 것이다. 반드시 우리는 잘 되고 잘 되고 잘된다. 반드시 축복이 되게 하신다. 그게 사명자이며 우리이다.

부천 주의나라 교회

김시원 목사

1. 부천 주의나라교회는?

부천 주의나라교회는 경기도 부천시 송내역 부근 상가 3층에 있는 교회이다. 2020년 10월 코로나바이러스가 한창일 때, 16명의 성도와 함께 첫 예배를 드렸다. 코로나로 인해 한국 교회가 매우 힘들고 침체되었던 시기였



지만, 온 성도가 한뜻, 한마음으로 예배의 자리를 지켰다.

교회는 본래 상동역 부근의 30평대 상가에서 시작했다. 하지만 성도가 10명 정도 더 늘어 개척한 지 1년 7개월 정도 되었을 때 현재 위치인 60평대로 확장 이전을 하였다. 현재(2023년 10월), 성인 재적 31명, 어린이 7명, 총 38명의 성도와 함께 예배하고 있으며, 평균 예배 인원은 29명이다. 1년 결산은 작년(2022년) 기준 4,300만 원 정도이다.

2. 개척동기와 과정

수련목회자를 시작하기 전, 교회를 개척해야겠다는 생각이 있었다. 하지만 현실적인 두려움이 앞섰고 개척하기를 포기했다. 그 이후 ‘수련목회자 → 군 선교사 → 부목사’라는 일반적인 행보를 걸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부목사를 하다가 담임을 구하는 교회에 이력서를 넣거나 청빙 받으면 되겠다는 생각이었다.

청년부를 맡아 사역하던 중, ‘청년과 청장년과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가 한국에 필요함을 느꼈고, 교회 개척에 관련된 책들을 읽기 시작했다. 개척에 대한 용기와 확신을 준 책은 『사도적 교회개척, 신학과 실천과 방향(양현표, 솔로몬, 2019)』이다. 책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문장은 다음과 같다. ‘교회가 유기체(생명체)라는 말은 다른 의미에서 말하면 언젠가는 죽는다는 사실을 내포한다. 그렇다면 이 땅에 교회가 유지 번성하게 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오직 출산뿐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법칙이다. 교회도 생명체로서, 교회가 이 땅에서 번성하는 방법은 새로운 교회들을 낳는 것뿐이다’

이전까지 ‘지금도 교회는 너무 많은데 왜 또 새로운 교회가 필요한가?’라고 하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변화를 두려워하는 교회의 고착화로 인해 젊은 세대들이 상처받거나, 교회를 떠나는 상황이 심각한 문제임을 깨닫고,

이들을 위한 새로운 교회를 마련해야 한다는 확신이 생겼다. 그래서 개척을 결심했다. 그리고 그 결심을 이루기 위한 여러 가지 준비과정이 필요했다.

가장 먼저 ‘가족의 설득’이었다. 개척은 나 혼자 하는 게 아닌 가족이 함께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가족이 반대한다면 쉽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온 가족이 믿어주었고, 개척의 사명을 응원해주었다.

두 번째로 ‘비전’이었다. ‘분명한 비전이 있는가? 비전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이 필요했다. 이것이 개척자의 마음에 명확하지 않으면, 개척하더라도 어느 교회와 다를 바 없는 교회가 될 것이며, 앞으로 성도들이 모였을 때 ‘왜 우리 교회를 다녀야 하는지’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세 번째로 ‘발품’이었다. 두 가지 의미로서의 발품인데, 첫 번째는 먼저 개척한 목회자를 찾아가서 개척 및 목회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먼저 그 길을 걸어간 사람의 이야기는 그 어느 책보다 값진 재산이었다. 감사하게도 주변에 먼저 개척한 지인들이 있어서 개척에 대한 솔직한 이야기와 조언을 들을 수 있었다. 두 번째 발품은 개척할 장소에 대한 발품이다. 보다 전략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많은 부동산을 찾아다니며 최적의 장소를 정하는 것이 중요하며, 주변에 같은 감리교회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검색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사람’과 ‘자본’이다. 개척하기 위해서는 입교인 12명 이상이 필요하기에 개척하고 사람을 모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사람을 먼저 모으고 개척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교회 공간을 마련하고 유지하는 자본에 대한 대책을 먼저 간구하는 것도 중요하다.



개척을 하기 9개월 정도부터 이러한 준비를 했다. 특별히 코로나였기에 마음을 더 단단히 했다. 여러 가지 준비와 마음의 각오 없이 하는 개척은 쉽지 않을 듯하다. 준비해도 개척하는 과정들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이다.

3. 비전과 교회 사역

하나님 나라만 생각하면 가슴이 벅차고 설렌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마치고 주님 앞에 있을 때의 감격이 정말 기대가 되기 때문이다. 주의 나라와 주의 뜻을 이 땅(개인, 가정, 교회, 일터, 지역, 세계) 가운데 이루어가는 것이 비전이며, 이 비전을 이루어가는 것이 교회라고 생각한다. 이 비전을 이루어 나가기 위한 전략은 다음과 같다.

1) 말씀으로 주의 나라를 경험하는 교회(개인)

주님의 뜻을 가장 정확하게 아는 방법은 말씀이다. 말씀을 알고 믿을 때 주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① ‘매일 말씀 묵상’을 훈련하고 있다. 성도들은 교회에서 먼 위치에 살기에 새벽기도가 다소 어렵다. 대신 월-금요일까지 묵상을 돕는 영상을 제작(나랏밥)하고 성도들에게 배포하여 말씀을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② ‘제자훈련’을 통해 말씀에 대한 오해를 이해로 바꾸고, 삶의 전 영역에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한다. 풍성한 삶의 기초라는 교재를 사용하고 있으며 새가족 교육을 마치고 등록된 교인에게 권면하고 있다. 성도의 80%는 훈련을 받았다.

③ 제자훈련을 이수한 성도들은 ‘성경 공부’를 통해 말씀의 깊이와 넓이를 더 확장 시킨다. 먼저 ‘성경익스프레스(테리 홀, 규장)’로 시작하고, ‘구약의 숲을 걷다(홍성환, 넥서스)’와 ‘신약의 숲을 걷다(홍성환, 넥서스)’로 말씀 코스를

밟고 있다. 제자훈련과 성경 공부를 이수한 사람들에게만 직분을 준다. 이는 목회자와 비전을 함께 공유하고, 말씀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④ 송구영신 때 말씀 카드 뽑기를 하지 않는다. 대신 한 성도 한 성도를 향한 말씀을 준비하고 심방하면서 그 말씀을 전한다. 그리고 하반기 가을 심방 때 그 말씀이 자신의 삶 가운데 성취되었는지 점검한다.

2) 사랑으로 주의 나라를 세워가는 교회(가정, 교회, 일터, 지역, 세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했다면, 공급받은 은혜를 각자의 자리에서 흘러 보낸다.

① 가정예배 회복을 강조한다. 네이버 밴드에 가정 예배문을 매주 업로드 하여, 가정에서부터 말씀과 기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153가정예배'를 교재 삼고, 매주 한 가지 말씀 암송, 다섯 가지 감사 제목,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누고 있다.

② 매달 첫째 주 주일에는 자녀와 부모를 위한 축복기도를 시행하고 있다. 아이들과 부모(청장년)가 함께 제단으로 나와 다음 세대와 부모들을 위해 기도 하며, 악하고 음란한 이 시대에 우리 아이들과 부모들이 다니엘과 같이 쓰임 받길 중보하고 있다.

③ 매월 마지막 주 예배 시간에는 자신의 직장과 세계를 위해 중보한다. 이를 통해 안 믿는 영혼들에게 그리스도의 편지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며, 기도의 지경을 세계로 넓히고 있다.

④ 전 교인이 격주로



지역에 나가 복음을 전하고, 역 앞에서 지역을 위해 기도한다. 어떤 이는 ‘노방전도가 효율성이 있느냐? 도리어 폐를 끼치는 것이 아니냐?’ 하겠지만 나는 노방전도를 통해 사람을 얻고자 함이 아니다. 세상에 복음을 선포하기 위함이며, 성도들의 영적인 훈련을 위해서이다. 교회 안에서만 예수님을 선포하는 것이 아닌, 교회 밖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존재 가치임을 가르치기 위해서다.

⑤ 지역을 위해 교회 대관을 시행하고 있으며, 강사를 모시고 원데이 클래스를 하는 등 교회의 문턱을 낮추고 지역과의 유대관계를 위해 힘쓰고 있다.

⑥ 개척할 때부터 선교하는 교회를 지향하였다. 교회는 축적하는 곳이 아닌 흘려보내는 통로이기 때문이다. 모잠비크(아프리카) 땅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과 국내 교회(충북 괴산등대교회)를 후원하고 있다.

3) 밝아오는 주의 나라 준비하는 교회(다음세대)

위에서 언급했듯이 부친 주의나라교회는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를 지향한다. 이를 위해

① 우리의 본 예배 시간은 오후 1시이다. 토요일에 잘 모이지 않는다. 이유는 교회의 소모품으로 활용되는 청년들의 모습이 싫었기 때문이다. 일주일 동안 학업과 직장에서 치열하게 부딪치고 눈물 흘리는 그들이 교회 사역이란 이름으로 억눌리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쉼을 누리게 하고 싶었다.

② 성도들이 주도하는 예배를 지향한다. 개척하고 1년간은 아무것도 맡기지 않았다. 1년간 기도하면서 자신들이 이 교회를 위해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발견하라고 했다. 1년이 지나 예배팀, 교육팀, 새가족팀, 재무팀을 세워 그들이 꿈꾸고 그리는 교회를 세워가고 있다. 본인들이 정한 사역들을 해 나가니 기쁨과 감사로 사역하고 있다. 한 달에 한 번 팀장 회의를 하면서 사역들을 조율해나가고 있다.

③ 1년에 두 차례 ‘복음 집회’를 열어 지역 청년들을 초대하여 함께 예배한다.

④ 향후 주변 대학생 기독교 단체와의 연합, 부천에 있는 미혼모 또는 편부모 아이들을 위한 선교, 유튜브 활용을 통한 미디어 선교 등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역할들을 잘 모색하여 적극적으로 할 계획이다.

4. 마치는 글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난다. 설교 시간에도 울고, 심방을 할 때도 울고, 상담할 때도 운다. ‘목회자가 강직해야지 맨날 질질 짜면 안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성도를 향한 나의 진심은 성도가 알아준다. 그래서 나의 사역은 눈물이다. ‘목회자가 하나님 앞에 울어야 성도가 웃는다’는 확실한 신념이 있기 때문이다. 위에서 지난 3년간 내가 한 사역들을 언급은 했지만, 그 무엇보다 중요한 건 ‘성도를 향한 진심과 신뢰’인 것 같다. 물론 개척한 이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개척 초기 구성원들이 다수 나가기도 하고, 어른들이 방문하고 등록했다가 교회에 대해 안 좋은 점을 쏟아내며 나가기도 했다. 내 안에 조급함과 불안함이 언제나 있었으며, 그 마음들이 성도들에게 전해지기도 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신뢰하셨듯이,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듯이, 나 또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고 신뢰하기로 수십 번 수



백 번씩 결단한다. 목회자와 성도 간의 신뢰는 참 중요한 것 같다.

따라서 개척을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사랑인 듯하다. 그 사랑으로 인내하고, 그 사랑으로 사역을 이어가는 것이다. 지금도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사역하시는 모든 분과 앞으로 개척을 준비하시는 모든 분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길 간절히 기도한다.

오빌교회

오만중 목사

웨슬리는 감리회의 존재 목적이 복음전도에 있음을 말한다. “우리의 사명은 잃은 자를 찾아 구원함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는 자들이 우리를 찾아오기를 기대할 수 없다. 그 대신 우리가 찾아가야 한다”라고 선포한다. 그리고 웨슬리는 기독교는 ‘사회적 종교’이며 ‘마음의 종교’임을 명시하였다. 필자는 웨슬리의 사역을 디아코니아 영성으로 표현한



다. 그는 영국사회와 한국사회를 변화시킨 실천신학자였으며 목회신학자, 순회설교자였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다양한 영역에서의 ‘섬김과 봉사’는 신약성경에 나오는 헬라어 디아코니아(*διακονια*)를 뜻한다. 이 글에서는 원어를 그대로 사용하겠다.

1. 오빌교회는?

오빌교회는 기독교대한감리회 서울남연회 강동지방에 개척되었다. 아내와 갓 태어난 딸과 함께 일 년간 예배를 드렸으며, 후에 지역사회의 봉사와 섬김 활동에 개척 멤버들이 구성되었다. 그리고 코로나 기간 속에 교회는 배가 부흥 성장하며 자립하게 되었고, 현재 50여 명의 성도(오프라인 30명, 온라인 20명)의 교회(하이브리드 처치)로 성장하게 되었다.

2. 개척동기와 과정

오빌교회(since 2012)는 서울 강동구 성내동 지하임대 교회로 시작되었다. 오빌산업(섬유공장) 일터가 모체가 된다. 부모인 노동자 부부는 목회자를 양성하였고, 목회자는 연단과 어려움 속에서 지하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다.

샘플처치, ‘이 땅에 본이 되는 교회’라는 비전을 가지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마을(지역사회)에 필요한 교회가 되고자 이웃을 찾아갔다. 디아코니아와 코이노니아 영성으로 서로 사랑을 실천하였다.

오빌교회는 선교 최전선 지하병커에서 참혹한 영적 전투를 이론과 실제로 준비하였다. 불편함과 초라함이 있을지라도 인내와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기에 힘썼다.

목회의 대상을 지역사회 전체, 마을주민으로 확대하였다. 지금도 비기독교인의 친구가 되고자 교회 밖으로 나가는 ‘찾아가는 목회’를 실현하고 있다.

웨슬리의 말을 인용하여 “마을이 나의 교구다!”를 외치며 마을 곳곳에서 이웃을 만났다.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어보겠다’라는 ‘마을선교사’의 심정으로 마을의 필요를 보고 들으며 공감했다. 우리의 교회들의 사역과 모습은 지역사회 안에서 더 구체적이고 더 지속적이어야 한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로마서 1:16)

3. 비전과 전략 (교회론과 목회철학)

예수님은 지금도 그리스도인들을 동일하게 ‘에클레시아’로 세상으로부터 믿음의 공동체로 부르시고(모이는 교회), ‘디아스포라’로 보내신다(흩어지는 교회).

우리의 목회사역은 크게 세 가지 구조로 표현된다. 하나의 사역의 구조는 예배, 설교, 성례전을 통한 ‘부름 받은 공동체’(Called Out Community)의 실현이며, 두 번째 사역의 구조는 교육과 코이노니아를 통한 ‘세움 받은 공동체’(Called Up Community)의 실현이며, 세 번째 사역의 구조는 ‘섬김과 선교’를 통한 ‘보냄 받은 공동체’(Called Into Community)의 실현이다.”



과거 바울도 이미 예루살렘 교회와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 이방 개척사역을 시작한다. 하나님 나라와 세상을 이어주는 베이스 캠프(안디옥교회)를 구축한다.

오빌교회는 이방인 중심교회를 추구한다. 사회적 목회와 복음전도의 융합 학문을 전공하여 실천하고 있다.

우리도 바울과 함께 이방 선교여행을 떠날 준비를 해야 한다. 그리스도인은 창조세계의 통치권을 위임받은 청지기(stewardship)로서 문화창조명령(창 2:15)과 지상대명령(마 28:18-20; 행 1:8)을 수행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4. 교회의 사역

1) 사역 정의

나의 사역은 (디아코니아)이다. 구약성경을 보며,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사랑하라는 말씀이 사명으로 다가왔다. 가까운 경로당을 매주 두, 세 번 방문하여 몸으로 봉사하였다. 당시 필자가 가진 자원은 ‘시간과 젊음’이었기 때문이다.

① 복지 디아코니아

첫 사역은 실버 사역이었다. 홀몸 어르신들의 신체적, 정서적 그리고 사회적 건강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열정과 성실함으로 움직이는 기도를 실천하였다. 매월 모임으로 독거 어르신과 취약계층의 노인분들을 만나게 되었다. 홀로 계신 어르신들을 위한 자조모임을 만들어 사회적 관계망과 안전망을 구축하였다. 마을에서 자조 모임이 진행되다 보니 공기관과 복지기관, 종교기관의 모범적인 민관협치 프로그램으로 발전했다. 어르신들은 서로 적응하며, 친한 이웃이 되어갔다. 서로의 담소와 웃음이 퍼져나갔고 지역사회에서 오빌교회도 좋은 소문을 듣게 되었다. 강동구 마을 강사들을 초청하여 다양한 프로그

램을 준비하고, 노인 레크레이션/건강지도사 자격증도 스스로 취득하여 직접 어르신들과 함께 ‘독거 어르신 행복동행’을 진행하고 있다.

실버 사역은 디아코니아의 현장이다. ‘고아요, 과부며 나그네’의 중심에는 노인들이 있기 때문이다. 노인들은 부모들을 여의고 그리워하며 살아가는 고아이며, 부모나 남편을 먼저 보내고 홀로 사는 과부요, 나그네로 인생 노년을 준비하는 어르신들이 하나님께서 마음을 쓰시는 백성이다. 노인요양원이 아닌 교회와 신앙공동체 안에서 웰빙(Well-Being), 웰다잉(Well-Dying)하며 함께 하나님 나라까지 ‘배웅하는 문화’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② NGO 디아코니아

NGO사역으로 지역사회의 문제에 함께 고민하며 어려운 이웃들을 만나게 되었다. 기독교자살예방센터(Life Hope)에서 전문가 양성과정을 이수하고 협약식을 맺었다. 마침 서울시자살예방센터에서는 마을에서 지속적인 민간자살예방활동을 할 수 있는 종교기관을 찾고 있었기에 오빌교회는 서울시 민간자살예방센터 모델이 되었다. 당시 강동구는 서울시의 25개 자치구 중 자살률 4위로 조사되었다. 지자체의 종교기관으로서 생명을 살리는 NGO 사역이 시작되었다. 소식을 듣고 강동구청장과 보건소 등의 관계자들이 함께 와서 격려하며 네트워크 관계망이 형성되었다. 교회가 사회문제와 지역사회의 필요를 위해 기도하며 관심을 가지니 전문 관계자들이 찾아왔다. 이러한 이웃들은 성도로 전도되기도 했다. 이를 계기로 강동구청 직장선교회와 배재고등학교 학원선교회에서 말씀봉사로 섬기고 있다.



NGO 사역으로 학교 밖 청소년을 상담하게 되고, 보육원을 퇴소한 청년들을 만나게 된다. 정신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가정에 가서 예배를 인도하기도 하고, 사춘기 자녀를 둔 어머니들을 위로하기도 한다.

독일에는 디아코니아센터가 4만여 개가 있다. 교회와 연계되어 국가적인 섬김과 봉사 사역이 자연스럽다. 교회는 마을의 복지기관, 교육기관, 의료기관, 공공기관 등을 지원하는 파트너십을 키워야 한다. 한국교회는 전문기관을 지원하는 ‘영적지원센터’가 되어야 한다.

③ 문화/예술/교육 디아코니아

지역사회에서 생명의 문화와 하나님 나라의 의를 전달하기 위해 2018년 성내PLUS 작은도서관을 교회 내에 개소하였다. 마을의 공적 공간으로서 문화, 예술, 교육 복지를 주민들에게 제공하며, 공유공간으로서 Church Sharing을 계획하였다. 개척 7년 안식년을 맞이하여 공간조차도 주님과 이웃에게 드리는 믿음이였다.

④ 정치/경제 디아코니아

같은 해에 교회에서 조금 떨어진 상가 1층을 임대하여 프랜차이즈 브런치 카페를 창업하였다. 초창기부터 아르바이트 직원을 고용하여 함께 비즈니스 목회를 하였고, 마을기업의 공간을 만들어 갔다. 비즈니스 카페를 마을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는 ‘비즈니스 목회’로 확장하였다. 청년 일자리, 장애인 일자리, 노인 일자리를 함께 기도하는 카페로 만들어 갔다. 그리고 마을의 플랫폼 역할과 네트워크의 장이 되었고, 나눔가게로서 마을 바자회와 지역사회 기부와 후원을 이어나갔다.

카페가 지역 안에서 소문나며 마을의 고민과 문제를 함께 고민하는 마을기업으로 자리 잡았다. 주변 목회자들도 현장에서 일과 기술을 함께 배울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 주었다. 학교 밖 청소년도 데리고 일을 가르치며 경력을 만들어 주었고, 경력단절 여성과 노인 일자리도 창출하여 옆에서 그들을 살펴 보며 함께 일하였다.

⑤ 종교 디아코니아

이렇게 시작된 작은교회의 사회적 목회는 시간이 흘러 종교기관으로서 복지, 정치, 사회, 문화, 예술, 교육 등의 영역으로 빠르게 확장되었다. 그리고 지금은 지역사회와 연결되어 직접적인 복음전도와 세례교육, 선교활동 등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다.

2) 핵심 사역 요약

우리 교회의 핵심 사역을 세 단어로 요약하자면, 신도회(Society) 안에서의 밴드(Band), 속회(Class) 이다. 사회적 영성으로 마을과 소통 공감(마을목회-순회설교자)하며, 복음적 디아코니아 실천이다. 그리고 코이노니아 영성으로 하나님의 관계를 강화하는 소그룹과 비기독교인과의 거버넌스 사회활동이다.



5. 초기 전도 / 핵심 멤버 세우기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에서 목회사회학 박사과정을 전공하여 사역 현장에
서 사회과학적 실험을 하였다. 주민센터와의 거버넌스로 시작된 복지 사역은
기독교자살예방센터를 운영하며 전문성을 겸비하고 이웃을 직접적으로 만나
게 되었다. 그리고 작은도서관의 개소로 교육, 문화, 예술 활동이 마을에서 펼
쳐졌다. 이를 통하여 교회 마케팅에서, 교회 브랜딩으로 전환되며 비기독교인
이웃들이 증언자, 전도자가 되었다. 코로나 기간에는 비기독교인이 비기독교
인을 전도하는 현장을 만나고 있다.

교회 근처에 프랜차이즈 카페를 창업하며 비즈니스 목회와 ‘브런치 커뮤니
티’의 모델을 실험하였다. 코이노니아와 성찬(애찬)을 중심으로 자유로운 예배
의 상상력은 가족 전도의 성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사회활동과 복음전도를 통하여 매년 세례식과 비기독교인 전도의
열매가 나타나고 있다.

6. 마치는 글

존 웨슬리는 메도디스트의 사회적 필요에 의해서 평신도 조직을 구성 운영
하였다. 그것은 신도회(Society), 반회(Band), 속회(Class)였다. 신도회는 영
어표현으로 ‘Society’라고 불리었다. ‘사회’라고 불리는 이 단어는 협의회, 공
동체, 기관 등의 의미로 생각할 수 있다. 현대에 이르러서는 사람과 사람을 연
결하는 온라인(Social Network System, SNS)와 지역마다 사람들을 연결하
고 돕는 사회종합복지관(Society total well fare) 등을 예로 볼 수 있다.

감리교 역사는 ‘Low Church’로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메도디스트들은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입어 모든 사람을 공감과 동감 그리고 동정으로 연

결하며 필요를 찾았다. 따라서 존 웨슬리는 사역 현장의 필요를 보고 노동자들과 여성, 어린이, 가난과 실업으로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 등을 위하여 신도회를 조직하였다. 신도회(Society)에서는 그들의 복지와 생계, 직업, 교육, 의료, 해방운동 등이 펼쳐졌다.

필자는 이것을 ‘디아코니아 영성’이라고 부른다. 영성에는 사색하는 영성과 행동하는 영성이 있다. 구분되지만 분리되지는 않는다. 사색은 행동을 만들고 행동은 더 깊은 사색의 세계로 이끈다.

행동하는 디아코니아 영성과 감리교인으로서 실천하는 성화의 영성을 사역 현장에서 찾아가기를 바란다.

삼시벨엘교회

장두민 목사

주일 11시.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는 주일 예배를 드린다. 중·대형 교회는 1부, 2부 심지어 3부까지 드리는 것이 당연하다고 할 수 있지만, 삼시벨엘교회는 단 한 사람을 위해서 2부 주일예배를 2시에 함께 드린다. 어촌마을 이다 보니 어촌계 공동작업(바지락, 홍합 작업)이 있을 때면, 교인들은 마음속에 큰 갈등



을 겪는다. 믿음으로 결단하여 주일 11시 예배를 드릴지? 아니면 작업을 하고 예배를 못 드릴지? 하면서 말이다. 교인들에게는 물때에 따른 바다 일은 생업이며, 공동할당량이 있기에 이 일은 믿음의 결단을 요구하는 일이었다. 그러나 우리 부부는 단 한 분의 권사님을 위해 2시에 똑같이 가운을 입고, 말씀을 전하며, 함께 찬양하며, 예배를 드렸다. 갯벌에서 힘든 작업을 마치고 부랴부랴 샤워하고, 단정하게 옷을 입고 오시는 권사님. 권사님을 뵈는 목사로서 나도 다시 한번 예배를 사모하는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다시 선다. 습관처럼 드리는 행위가 아니라 마음과 열정을 다하는 모습으로 우리는 함께 예배드린다.

1. 삼시벨엘교회는?

삼시벨엘교회는 충청연회 대천서 지방에 소속된 교회로,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안에, 화살이 꽃힌 활과 같다는 이름에서 붙여진 “삼시도”라는 섬에 있는 교회다. 삼시도는 대천항에서 1시간 30분 정도 배를 타고 들어오는 곳으로, 인구 수 200여 명이 안 되는 작은 섬마을이다. 2022년부터 장두민 목사가 부임하였고, 교인들의 연령은 70~90대로 구성된 교회다. 처음에는 삼시제일교회의 임시기도처소였지만 1987년 삼시벨엘교회가 세워졌다.



2. 부임하게 된 과정

경기도 남양주시에 있는 사도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하며, 개척에 대한 비전을 두고 기도하던 중이었다. 믿음의 결단으로 개척하고자 아내와 아이와 함께 거주할 아파트도, 개척할 곳도 정해졌던 때였다. 그런데 부임하기 4일 전 수요일에 9개월간 예배가 멈춰있는 삼시벨엘교회 소식을 듣게 되었다.

섬이라는 곳의 한계성과 불편함, 열악한 상황과 환경을 익히 잘 알고 있었다. 그 이유는 담임전도사 시절 ‘육도’라는 섬에서 4년간 사역을 했었기 때문이다. 마트에서 장 보는 일, 택배도 안되고, 기상에 따른 변화가 변화무쌍하고, 수도, 전기 등 모든 것들이 열악한 환경이다. 또한, 섬은 고립되고 한정적인 공간 안에서 태어나서 70~80년 동안 한평생을 같이 살아온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다. 대부분은 친인척 관계로 얽히고설킨 곳이다. 그러한 곳에서 목회하고 전도하며 선교할 때는 섬의 특수성을 잘 이해해야 한다. 그러기에 아내와 아이와 함께 섬으로 다시 들어간다는 것은 큰 결단이 필요하였다.

이미 살 곳도, 개척할 곳도 정해진 상태였음에도, 단번에 믿음의 결단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 우리 가정은 삼시벨엘교회에서 교인들과 함께 첫 주일예배를 드리게 되었다.

3. 비전과 전략 (비전 : 예배 회복하기)

1) 부임하기 전 상황파악/이해

교회를 부임하기 전 상황은 담임자의 공석으로, 9개월간 예배를 드리지 못한 상태였다. 교회와 사택은 거미줄과 검은 곰팡이뿐만 아니라 냉랭함이 맴돌았다. 삼시벨엘교회에 부임하면서 가장 먼저 생각했던 비전은 “예배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었다. 코로나19로 예배를 드리지 못한 것이 아니라 담임자의

부재로 멈춰있던 상황이었기에 성도들의 마음에는 상처가 있었고, 공동체는 와해되어 있었다. 30명의 성도 중에 5명만이 남아있었다. 첫 주일 예배를 드리고 삼시도로 이사 오고, 우리 부부는 심방하는데 주력하였다.

2) 심방하기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성도들의 상황을 이해하고, 삶을 돌아보며 알아가는 일이 우선이라고 생각했다. 그들의 심리상태를 이해하고, 그들에게 다가갈 때 적절한 방법을 통해 관계를 맺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시작한 전략은 이것이다.

첫째, “매듭 목회”였다.

끊어졌던 관계, 엉킨 끈들을 다시 풀고, 다시금 단단하게 매듭을 묶고 회복하자는 의미에서 매듭 목회를 생각했다. 교회에서 성도들이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한마음과 한뜻이 되어 공동체를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섬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성도들 대부분이 가족관계, 친인척 관계이다 보니 폐쇄적인 성향이 강하다. 또한, 섬은 외부에서 정착할 때, 누군가 새롭게 이사를 오는 것도 환영하거나 달가워하지 않는 분위기이다. 견제하고, 거리를 두



며 그 사람을 알아가며 관계를 맺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너무 부담스럽지 않은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도, 항상 따뜻하게 다가가 필요한 부분을 도와주었다.

- 교인 심방 : 한 달에 한 번씩 교인들 가정에 과일, 떡, 간식 등을 준비하여 심방하기. 아픈 분들에게는 죽, 비상약품, 파스를 준비.
- 낙심자 심방 : 부담스럽지 않도록 안부인사와 함께 문 앞에서 준비한 선물을 드리기.

삼시도는 관광 섬으로, 바다낚시, 갯벌체험, 민박 또는 펜션을 운영하시는 성도들이 있었다. 코로나19로 상황이 여의치 않아져, 펜션 운영에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었다. 그래서 펜션 운영에 도움이 되도록 관광객들이 머물 수 있도록 소개해 드렸다.

둘째, “스펀지 목회”였다.

9개월간 교회에 담임자의 부재로 섬마을에서는 교회가 사람들의 가십거리가 되었다.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데, 그들의 골칫거리와 걱정거리였다. 오히려 마을 사람들이 목사를 걱정하고 교인들을 걱정했다. 이러한 상황이 너무나 안타까웠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교회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교육하고, 알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교회는 사회복지센터도 아니고, 병원도 아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공동체이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나 자신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나눴다.

그러면서 생각한 것이 “스펀지 목회”였다. 단번에 바꾸고, 모든 것을 새롭게 하기보다는 가장 중요한 것들을 세워나가되, 물이 스펀지에 흡수되듯이, 교인들이 교회에 스며들어 정착할 방법을 생각해보았다.

예배 중심의 교회를 세워나가되, 2주에 한 번씩 성경 빈칸 괄호 문제를 통해서 성경을 함께 읽는 것에 집중하였다. 심방을 하면서 교인들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였다.

3) 전도 (어촌마을 섬기기 : 어촌계공동작업/ 마을잔치)

어촌마을은 1년에 3개월을 제외하고는 공동작업을 하는 어촌계작업이 있다. 삼시도는 홍합, 바지락 작업 등을 한다. 이른 새벽 바다에 나가 배에서 작업하시는 분들도 있고, 잡아 온 것들을 분류하여 상품화하는 작업도 있다. 물때에 따라 작업시간도 달라지는데, 새벽 5시, 6시 또는 아침 9시 등 상황에 따라 시간이 달라진다. 밖에서 작업하시다 보니 뜨거운 여름에는 피약별이 내리 췌 때는 시원한 냉커피로, 겨울에는 차가운 바닷바람을 맞으며 갯벌에서 작업하실 때는 따뜻한 커피를 준비해서 대접하였다. 간단한 간식을 준비해 드리면서 마을 분들을 섬겼다.

4) 교회들의 연합

삼시도에는 감리교회 2개와 장로교회 1개가 있다. 그래서 삼시도에 와서 한 일은 삼시벤엘교회, 삼시제일교회, 열매교회가 하나가 되어 삼시도를 위해 함



께 기도하고, 전도하고, 섬기는 일을 시작하였다.

- 어촌계작업이 있을 때, 교회들이 연합하여 함께 커피와 간식을 준비해서 나눠드리기
- 매주일 아동부 예배를 같이 연합하여 드리기
- 연합 부흥회하기

4. 하나님께서 삼시도를 위해 하신 일

1) GOODTV “사랑은 강물처럼”

하나님은 완벽한 타이밍에 역사하신다. 삼시도를 위해 전도하는 과정에서 ‘도민들에게 어떻게 우리의 진심을 전할 수 있을까?’ 고민이 되었다. 그렇게 3개월을 기도하던 중에 기독교방송국 GOODTV “사랑은 강물처럼”이라는 프로그램에 우리의 사역 이야기를 담게 되었다.

하나님께서서는 이 영상을 통해 일하셨다. 삼시도에 사시는 분들의 자녀들이 영상을 보게 되었고, 도리어 육지에서 섬에 계신 분들에게 카톡을 보내 삼시벤엘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주었다. 이 일을 통해서 그 동안 교회로 발걸음을 내딛지 못하셨던 분들이 마음의 감동을 하여 교회를 찾아오시게 되었다. 그 동안 교회에 대한 상처와 많은 오해가 녹는 계기가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일하셨다. 이 영상으로 삼시도에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되었다.

2) 국내 선교 사역

삼시벤엘교회가 삼시도 마을을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이나 교회의 전체적인 수리할 것들을 생각할 때 막막할 때가 있었다. 교회가 섬에 위치하다 보니 여

러 가지 환경과 조건의 제약이 있기 때문이다. 재정적으로든지 지리적으로든지, 필요한 인원이나 자원이 부족할 때가 많다. 그런데 “사랑은 강물처럼”의 영상을 보고, 2곳의 교회에서 국내 선교로 섬겨주셨다. 하나님은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셨고, 그 사역을 통해서 교회로 발걸음하기 어려웠던 마을 분들이 교회마당에서 함께 식사하고, 그 이후로도 교회로 찾아오시는 분들이 늘어나게 되었다.

- 교회 건물 전체 외벽 페인팅
- 마을 도민 전체 식사 대접과 선물
- 여름성경학교
- 마을청소
- 노인회, 부녀회/도민 : 곡식, 돼지고기 섬김

이렇게 부임하여 첫 주일 우리는 5명이 예배를 드렸었다. 그리고 3개월 만에 12명의 성도가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 1년이 지난 현재 3명의 성도가 등록하여 총 15명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

5. 마치는 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다 기록할 수 없다는 찬양 고백처럼, 1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삼시벤엘교회’에게 많은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

삼시도는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섬으로, 보령시 관광사업계획으로 교회 앞에는 인공호수와 공원이 조성되었다. 앞으로도 많은 이들이 교회 앞에 발걸음을 옮기게 되는데, 그 걸음 위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맡겨진 사명을 다하고자 준비하고 있다.

우리들의 삶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 후회가 남지 않는 일은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인 공동체, 어떤

시간이든지 상황과 환경에 따라 예배한다는 목적으로 모인 이곳은 언제나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보고, 발견하게 하셨습니다.

하나의 습관처럼 형식적으로 드러지는 예배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을 잃어버린 것일지 모른다. 그러나 예배 시간이 어떠하든지 다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우리 교회는 그 시간에 모여 함께 뜨겁게 예배드린다.

아침이면 어떠하고, 오후이면 어떠한가?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며, 단 한 사람의 예배자를 찾으신다. 오늘도 우리 삼시벤엘교회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길 소망한다.

살아있는교회

이경록 목사

1. 살아있는교회는?

살아있는교회는 공유교회이다. 서울남연회 서초지방에 속해있고, 현재 서울드림교회 비전 센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 살아있는교회가 어떻게 공유교회를 하게 되었는지, 공유교회와 살아있는교회 이야기를 나누려고 한다.



2. 개척동기와 과정

7년 동안 사역했던 교회에서 사임하고 4개월 정도 쉬고 있을 때, 사업을 하는 친구의 부탁으로 다시 서울로 올라오게 되었다. 그리고 8개월간의 직장 생활을 시작했다. 직장생활을 통해, 성도들의 고달픈 삶을 잠시나마 경험하였고 직장에서,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서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를 경험했다.

내가 목회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성도들이 어디에서든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히 살아가도록 믿음으로 이들을 세우는 목회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었다. 회사대표인 친구를 전도하고 싶어서 교회를 다니라고 오랫동안 권면하다가, 회사에서 운영하는 학원에서 함께 예배를 시작했다. 그렇게 교회가 시작되었다. 개척하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개척에 대한 준비도 되어있지도 않았다. 오로지 친구와 그의 가정을 전도하고 싶은 마음에 예배를 시작하게 되었고, 그 예배는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다.

3. 살아있는교회 사역

1) 강남역 노방전도

살아있는교회는 2017년 10월 강남역5번 출구 2층에 있는 영어학원에서 시작되었다. 학원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운영되었고, 주말에는 공간이 비어서, 주일에는 교회로 사용할 수 있었다. 강남을 품고 기도한 적도 없고, 강남에서 개척해야겠다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는데, 이곳으로 오게 된 이유는 이곳으로 개척의 문이 열렸기 때문이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직장인들로 거리에 사람이 넘쳐나는 곳이지만, 주일에는 정말 한가하기 그지없

는 곳이 이 지역의 특징이었다.

이곳에서는 어떻게 교회를 세울 수 있을까? 먼저 이곳에 교회가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배너를 만들고 주일마다 세워두었다. 교회가 간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십자가가 세워진 것도 아니므로, 일단 이곳에 교회가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노력했다. 매 주일마다 예배 전에 성도들과 함께 노방전도를 했다. 물론 강남역이라는 지역의 특성상 유동인구의 대부분은 이 지역에 사는 분들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교회 소개와 영혼 구원에 대한 마음을 갖기 위하여 노방전도를 했고, 지금도 매주 진행하고 있다.

2) 서울대 수요일예배

집이 서울대 근처여서 가끔 서울대로 산책하러 갔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예배하면 좋겠다는 마음을 부어주셨다. 그때부터 함께 사역하는 전도사님과 청년들과 함께 서울대 잔디밭에서 수요일예배를 시작했다. 잔디밭에서 드리는 예배라 신선하기도 하고, 궁금해서 이곳에도 방문하는 분들, 구경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셨다. 응원한다고 음료수를 주시는 분들도 계셨고, 나도 크리스천인데... 이렇게 말하고 가시는 분들도 있었고, 예배를 드린다고 핍박하



시는 분들도 있었다. 그러나 주님이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마음을 주셨다. 그렇게 1년을 예배드렸는데, 봄과 가을에는 굉장히 좋은데, 여름과 겨울에는 덥고 추워서 힘들었던 기억이 있다.

3) 공휴사역

강남역에서 예배를 드릴 때, 늘 이곳에서 예배하며 이 지역을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를 고민했다. 성도들과 금요일 밤 기도 모임을 하고 늦은 시간(새벽 2시)에 집에 돌아가려고 강남역을 지나가는데, 놀랍게도 강남역 안에 노숙자들이 있었다. 강남역에서 일을 8개월이나 했고, 이 역을 술하게 지나다녔는데, 노숙자를 본 건 처음이었다. 그리고 그들이 자꾸 마음에 걸렸다. 그래서 이들을 섬기기로 마음을 먹고 성도들과 나눴다. 그때부터 공휴사역(노숙인 사역)을 하게 되었다. 이 사역을 위해서 온 성도들이 모여서 편지를 썼다. 빵과 간식만이 아닌 무엇보다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었다. 편지를 정성스럽게 쓰고 간식들을 준비하여 강남역으로 나갔다. 새벽 1시쯤 되자 한 분 두 분 강남역 안으로 들어오셔서 자리를 펴시고 주무실 준비를 하셨다. 그곳에 계신 분들에게 준비한 간식과 편지를 나눠드렸는데, 주무시다가 편지를 보시고 한참 동안 앉아 계신 분도 계셨다. 그렇게 시작한 공휴사역이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고, 지금은 서울역에서 매달 마지막 주일에 진행한다.

4.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예배공간인 학원은 안정적이지 못한 불안한 장소였다. 예배 중에도 학원인 줄 알고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었고, 직원 중에는 주일에 일하기 위해 오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그분들은 예배를 드리는 것을 굉장히 불편해하셨다. 이런저런 상황으로 안정된 예배 장소는 아니었다. 그렇게 학원에서의 예배는 1년 6개월 동안 계속되었는데, 학원을 운영하는 회사가 다른 회사랑 합병이

되면서 주일에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새로운 예배 장소를 구해야 하는데, 앞길이 막막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두렵거나 마음이 복잡하지 않았다. 기도해서 하나님께 구하자. 안되면 주일에 길거리에서라도 예배드리자. 다짐했다. 학원에서 예배드리고, 서울대학교 캠퍼스 잔디밭에서도 예배드리고, 공유사무실에서 예배드리고, 노숙인들에게도 찾아가는데 주님이 예배하라고 마음 주시는 곳이면 그게 어디든 예배하자. 그러한 마음으로 성도들과 함께 새로운 예배장소를 위해서 기도했다. 그러나 새로운 예배장소를 위한 기도는 아주 구체적으로 기도했다. 하나님, 지금은 우리가 학원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교회가 주는 안정감이 없습니다. 교회에서, 혹은 교회 같은 따뜻한 곳에서 예배하고 싶습니다. 또 주차가 가능한 곳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적은 사용료를 지불하고 사용하고 싶습니다. 이 기도제목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기적인, 양심 없는 기도일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맡겨드리며 기도했다.



기도의 응답으로 만난 것이 처치브리치이다. 처치브리치는 개척교회를 돕기를 원하는, 개척해서 건강하게 교회가 성장한 목사님들의 모임이다. 그분들은 한국교회를 걱정하면서, 개척교회가 어떻게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많은 도움을 주시고자 했고, 실제로 많은 도움을 주셨다. 그중 서울드림교회 신도배 목사님은 그 교회 비전센터에서 살아있는교회가 예배할 수 있게 해 주셨다. 우리는 감사함으로 그곳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성도들과 함께 예배장소 이전을 위해 한 달 동안 특별기도회를 하고, 새롭게 예배드릴 장소에 갔을 때 정말 우리가 기도했던 딱 그 예배당이 준비되어 있었음을 보게 하셨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주님은 살아 계십니다.” 주님이 인도하셔서 새롭게 예배하게 된 장소는 주일에 예배당을 공유해서 사용하는 공유교회 공간이었다. 전혀 생각도 못 해 본 공간이자 개념이었다. 그러나 우리 교회가 사용하기에 최적의 장소였다. 그러면 주중 예배나 모임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질문하는 분들이 계신다. 살아있는교회는 개척 때부터 그랬듯이 문이 열리는 곳으로 간다. 아침 7시에 성도들의 직장 근처의 카페에서 제자훈련을 하기도 했고, 사무실에서 하기도 했고, 다른 교회 공간을 빌려서 말씀집회를 열기도 했다. 워낙 많이 옮기고 돌아다니면서 예배하고 모임을 하다 보니 어느 공간에서든 예배와 성경공부가 어색하지 않다. 오히려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우리의 믿음의 지경을 넓혀주셨다고 믿고 감사하고 있다. 이것이 우리 살아있는교회의 정체성이 되었다.

5. 공유교회

코로나를 지나면서 많은 교회가 없어졌다고 들었다. 교회들이 문을 닫은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인 문제, 재정적인 이유였을 것이다. 성도들이 모일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다가 믿음이 약해져, 개중에는 아직도 회복이 안 되는 성도들이 많이 있다. 자연스럽게 교회들은 재정적인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 살아있는교회도 동일하게 코로나 3년을 지나면서

아예 교회에 안 나오는 성도들, 가정들이 있었다. 성도도, 재정도 줄어들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공유교회였기 때문이다. 일단 월세를 포함한 고정지출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다. 교회를 개척할 때도 마찬가지로이다. 개척하려면 건물을 임대하는 것부터, 준비해야 할 것이 한둘이 아니다. 그러나 공유교회는 그러한 수고가 많이 줄어든다. 물론 공유교회에서 처음 개척을 하려고 하면, 내가 원하는 지역이나 장소에서 할 수 없다. 공유교회 공간이 세워진 지역과 장소에서 해야만 한다. 한마디로 문이 열리는 곳으로 가야 한다.

살아있는교회는 2023년 9월에 C국으로 선교사 부부를 파송하였다. YM 출신 평신도 선교사인데, 1년 반 동안 함께 기도하였고, 9월에 이 가정을 파송할 수 있었다. 선교사 파송을 생각해 본 적도, 꿈꿔 본 적도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 가정을 파송하였다. 아직 연약한 교회이지만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공유교회이기 때문이다. 건물이나, 임대료에 대한 재정을 줄여서 이것을 선교로 흘려보낼 수 있었다.

공유교회라는 개념이 아직 보편화된 교회의 모습이나 개념은 아니지만, 이미 여러 곳에서 공유교회 공간을 만들어서 개척하는 교회나, 작은 교회들이 들어와 그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렇다면 공유교회 공간을 세운 교회나 단체들은 왜 이러한 공간을 세우게 되었을까? 인



터넷에 공유교회라고 찾아보면 이미 여러 곳에 공유교회의 내용 들이 잘 소개되어 있다. 중요한 것은 그 교회나 단체는 이런 공유교회 공간을 “왜, 세우게 되었는가?”이다. 당연한 대답일 수 있지만, 이 땅에 있는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사랑하고,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기도하고 고민하다가 나온 결과가 공유교회 공간이다.

지금 이 시대의 환경과 상황은 교회가 세워지기에 너무나도 어려운 환경과 상황이다. 개척을 시작하는 분들이 대부분 돈이 없는데, 돈이 있어도 교회에는 건물을 임대 해주지 않는다. 어떤 곳은 장로님이 건물주이신데도, 교회에는 임대 해주지 않는 상황이다. 그런데 공유교회 공간이 세워지면 그곳에서 많은 교회가 새롭게 태어날 수 있고, 그곳에서 성장해 나갈 수 있다.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 새로운 환경이 조성되는 것이다. 요즘 공유경제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다. 교회도 이 시대의 변화에 맞춰서 새로운 개척의 패러다임인 공유교회에 관심을 두고, 많은 교회가 공유교회 공간을 세워서, 더 많은 교회가 그곳에서 태어나, 건강한 교회들로 성장하여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키는 일들이 일어나길 소망한다.

6. 마치는 글

개척은 어렵고 힘들지만,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면 주님이 길을 여신다. 기존의 정형화된 교회의 모습이 아니더라도, 새로운 모습, 다양한 모습으로 교회가 개척될 수 있다. 어쩌면 그것이 이 시대를 향한 주님의 새로운 복음을 위한 전략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건강한 산모가 건강한 아이를 출산하는 것처럼, 한국교회가 더욱 건강해져서 많은 교회가 이 땅에 태어나 건강하게 성장하여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키는 그날이 속히 오길 기도한다.

미자립 관련 정책

SESSION 4

국내선교부

1. 미자립교회 기준과 현황

1) 미자립교회의 분류

감리회는 연말 경상비 결산액 4,000만원 미만 교회를 미자립교회로 구분한다. 이는 교리와 장정 '미자립교회 대책 및 교회실태조사 위원회 규정' [2250] 제2조(정의)에 언급되며 '총회 실행부위원회의 결의에 의해 기준이 결정된다고 덧붙인다.

일반적으로 미자립이나, 자립이나는 '목회자 생활에 필요한 사례비'를 감당할 수 있느냐를 놓고 구분한다. 하지만 현행 결산액 4,000만원 미만만을 놓고 구분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 왜냐하면 우선 다양한 목회현장의 차이를 충분히 반영했느냐다. 분명 하나의 기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타 교단의 경우는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등 현장

을 분류해 기준의 차등을 두기도 한다. (예를 들어 예장 통합, 예장 합동)

현재 감리회는 하나의 기준을 정해 감리회 전체를 관리한다. 다만 교회 현장의 변화를 예의 주시하며 이를 반영하고 기준을 조정해 왔다. 2006년에는 2,500만원 미만, 2012년에는 3,500만원 미만 그리고 2021년에는 4,000만원 미만으로 개정되었다.

2) 타 교단의 미자립교회 기준과 현황

감리회와 타 교단의 경우를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먼저 예장 통합이다. 통합측은 농·어촌은 2,000만원, 중·소도시는 2,500만원 그리고 대도시는 3,000만원을 기준을 삼고 있으며, 현재 미자립의 비율은 35%이다. 둘째 예장 합동이다. 합동측은 1년 예산 3,000만원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 하지만 목회 현장을 구분해 도시교회 3,500만원, 농·산·어촌교회 2,500만원으로 삼아 미자립의 비율이 42%이다. 그리고 감리회는 4,000만원 미만을 기준으로 미자립의 비율이 46%이다.

각 교단 내의 미자립교회의 비중은 35%, 42%, 46%로 차이가 난다. 하지만 아래와 같이 각 교단은 다른 기준을 근거로 미자립교회를 분류하기에 생긴 차이로 보는 것이 맞다. 또한 각 교단의 기준을 조절해 감안해 보면 결과적으로 비슷한 비율임을 알 수 있다.

교단	기준	비율
예장통합	농어촌 2000, 중소 2500, 대 3000	35%
예장 합동	3000만원 (도 3500, 농 2500)	42%
기감	4000만원 미만 (일괄)	46%

2. 감리교회 내의 현황과 미자립교회 비율

1) 국내교회 미자립비율 (2022년 결산 기준)

자립	3,363	54%
미자립	2,908	46%
전체	6,271	100%

* 미주자치연회 및 해외 소재 지방 제외

2) 연회별 교회 집계

구분	서울	서울남	중부	경기	중앙	동부	충북	남부	충청	삼남	호남	합계
교회	385	385	1,080	799	567	681	409	616	658	420	271	6,271
자립	243	208	612	407	319	391	189	285	404	192	113	3,363
미자립	142	177	468	392	248	290	220	331	254	228	158	2,908
비율	36.9%	46%	43.3%	49.1%	43.7%	42.6%	53.8%	53.7%	38.6%	54.3%	58.3%	46.4%

3. 미자립교회와 관련된 주목할 만한 정책

1) 이중직 목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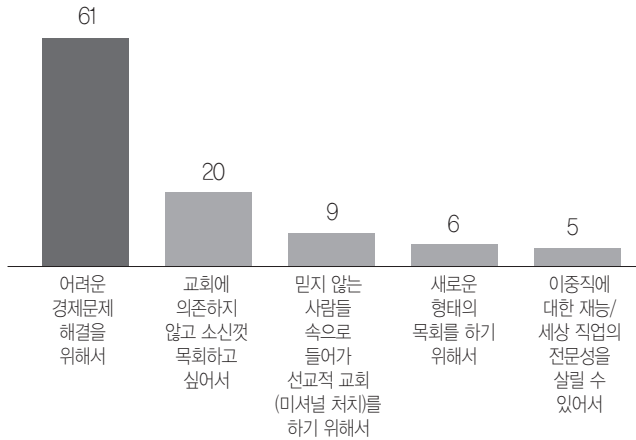
최근 이중직 목회에 대한 주제를 목회데이터연구소(대표 지용근)가 조사한 바 있다. 목회데이터연구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및 ‘통합’ 소속 교인 50명 이하의 교회의 담임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이중직 목회에 대한 인식과 이중직 목회자의 목회상황에 대해 조사했다.

① 이중직 목회자가 급증한 원인은 무엇일까?

목회데이터연구소에 따르면 2001년 이전에는 이중직 목회의 비율은 2% 밖에 되지 않았다고 한다. 하지만, 2010년 이후 이중직 목회자가 급증하기 시작했다. 교인수의 급격한 감소의 영향이다. 교회의 소규모화가 진행되며 교회의 현금 수입이 줄고 목회자의 사례비를 적정 수준으로 지급하지 못하거나 아예 지급하지 못하는 사례가 늘어난다는 의미다.

[그림] 이중직 수행 이유 (상위 5개)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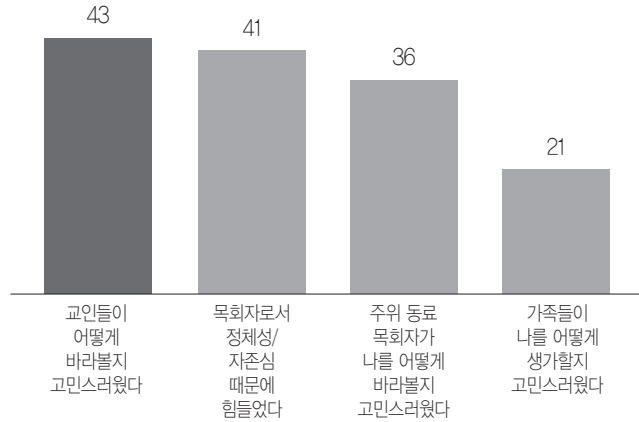
* 자료 출처 : 이중직 목회자에 대한 인식과 실태 조사, 2021. 08. 25.
(출석 교인 50명 이하 교회 담임목사이면서 이중직 목회자, 220명, 모바일조사, 2021. 6. 10~7.1)

② 이중직 목회자들은 처음 이중직 수행을 결심할 때 자괴감에 괴로워하고, 교인과 동료 목회자의 시선을 의식하여 고민에 빠진다. 이중직 목회에 떳떳하게 나서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이중직 목회를 바라보는 교단과 주위의 시선 때문이다.

1) 목회데이터연구소, 2021년 9월10일, 111호-〈50명 이하 교회 담임목사, '현재 이중직 하고 있다' 3명 중 1명 꼴〉, http://www.mhdata.or.kr/bbs/board.php?bo_table=koreadata&wr_id=162

[그림] 이종직 수행 결정할 때 심정 ‘그렇다’(매우+약간)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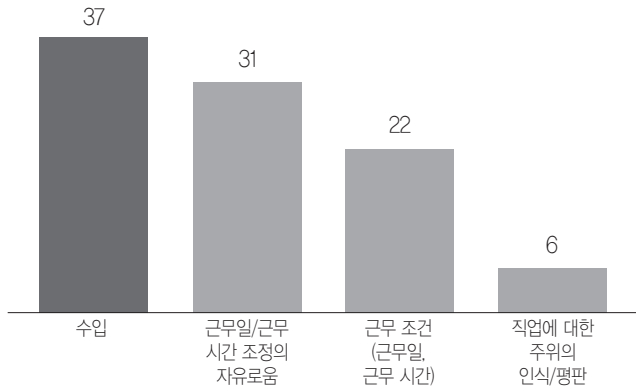
(단위: %)



③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주목할 점이 하나있다. 목회자가 직업을 고를 때 어떤 기준으로 고르느냐는 것이다. 1위로 응답한 기준이 역시 ‘수입’이었다. 생활비를 벌기 위해 직업을 고르는데 ‘수입’이 기준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당연한 ‘수입’이 기준이 된다고 하는 비율이 37% 밖에 되지 않았다. 오히려 ‘근무일/근무시간 조정의 자유로움’이 그에 못지않은 31%, ‘근무조건(근무일, 근무시간)’이 22%였다. 이 결과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 그것은 목사가 직업을 갖는 것은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목회를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목회를 해야 하기 때문에 수입도 따지지만, 오히려 수입이 적어도 근무 조건(근무일, 근무시간)에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직종을 선택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이종직 목사들이 단순 노무직이나 자영업을 주로 선택하는 것도 기본적으로는 사회에서의 직업적 능력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목회자가 선택할 수 있는 직종이기도 하지만 자기가 목회를 위해 근무 조건을 선택할 수 있는 직종이기 때문이기도 한다.

[그림] 이중직 수행 이유 (상위 4개)

(단위 : %)



이에 이중직 목회자에 대한 시각도 재고할 필요가 있다. 먹고 살기 위해 직업을 갖는 목사라는 한계적 존재가 아닌 어려운 상황에서도 목회를 포기하지 않기 위해 헌신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투철한 목사로 보아야 한다. 비록 교인이 몇 명 있지 않아 교회 존립을 걱정하기도 하지만 그 걱정을 떨쳐내고 목회가 소명임을 붙들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목회를 포기하지 않고 지속하는 것이 이중직 목사다. (출처 : '넘버즈' 목회데이터 연구소)

2) 교단 차원의 이중직 허용 입장

주요 교단 이중직 허용현황

교단	허용여부(시점)	조건	관련기구
예장합동	부분허용 (2018)	미자립교회	없음
예장통합	불허		
기감	부분허용 (2020)	미자립교회	연회
기성	불허		
기하성	불허		
기침	규정 없음		
기장	규정 없음		
고신	불허		
합신	불허		

(국민일보 2022. 7. 8)

현재 감리회와 예장 합동이 목회자의 이중직을 허용하고 있다. 이 외에 다른 교단들은 기본적으로 이중직에 대해 불허하고 있다. 그럼에도 현실적으로는 상당수의 목회자들이 이중직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있다. 한국 교회의 상당부분이 미자립이고, 이에 상응하는 비율로 이중직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그럼에도 이중직을 허용하는 교단은 감리회와 예장 합동 두 교단 정도에 머물고 있다. 당연하지만 두 교단은 미자립교회에 한해 이중직을 허용하고 있다. 그리고 감리회는 이중직 또한 연회 차원에서 관리하고 있다.

3) 공유교회

목회와 교회개척에 있어 가장 부담되는 것은 예배공간의 마련이다. 이로 인

해 최근 ‘공유교회의 개념이 부각되고 있다. 즉 하나의 예배공간을 복수의 교회 공동체가 함께 사용하는 방식을 일컫는 말이며, 이와 같은 변화는 그동안 교회가 개척되고, 성립되려면 예배를 위한 건물을 구입하거나, 건축해야 한다는 ‘소유’ 개념을 탈피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교회가 갖게 되는 부담과 수고를 덜어주어 교회가 성장할 기회를 준다는 장점이 있다. 감리회는 지난 34회 총회 입법의회를 통해 ‘공유교회’를 결의했다. ‘교리와 장정’ ‘편찬사’에 따르면 ‘공유교회’의 결의는 이번 입법 중 가장 중요한 개정사항 중 하나며, 또한 감리교회의 생존과 연결된 중요한 법이라고 높이 평가하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 점차 좁아지는 선교의 문으로 미자립교회가 더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기 상황에서 이 법이 제정될 수밖에 없었다고 말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공유교회를 위한 몇 가지 조건들이 소개된다.

- ① 연회마다 공유교회에 대한 시행세칙을 세워 허용범위를 정해야 한다.
- ② 공유교회는 3년 동안 유지해야 하며, 한 번 더 연장해 6년까지 공유할 수 있다.
- ③ 공유교회를 통해 친인척 간의 공유교회를 해서는 안 된다.

먼저, 연회가 시행세칙을 정해야 한다. 교리와 장정 [205] 제5조(개체교회의 설립과 예배처소 공유) “⑥… 연회실행부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감독은 연회 내에 있는 복수의 개체교회(‘공유교회’라고 한다)가 하나의 예배처소를 공동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신설〉”에 따라 연회실행부위원회가 시행세칙을 정해야 하고, 또한 연회 내에 있는 복수교회가 하나의 예배처소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안전에 대해 연회실행부위원회가 의결해 연회감독이 연회 안에 있는 복수의 개체교회가 하나의 예배처소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1708] 제8조(지방회 경계의 확정) 2항에 따르면 “② 조직과 행정법에 따른 공유교회는 원 소속 지방회에 속한다.〈신설〉”에 따라 새로 마련된 예배처소의 지방회가 아닌 원지방회에 속하며, 또한 일정 기간 이상 지속적으로 머물지 못하도록 함으로 이 예배처소는 공동으로 이용하는 장치임을 인지하고, 이

후 교회가 속히 성장하기를 요구하는 개념들이다. 마지막으로 일각에서는 ‘공유교회’ 제도가 대형교회 내부에 세워진 공유교회를 세우고, 이후 지교회 혹은 편법세습의 도구로 악용될 수 있음을 될 수 있음을 고려해 친인척 간의 공유교회를 제한하고 있다.

나가는 글



박 영 진 목사
(개척미자립정책위원회 위원장)

1. 2023년 5월 11일, 정부는 ‘코로나19’ 비상사태의 종식을 선언했다. 무려 3년 4개월 만에 일상을 되찾게 되면서 모든 것이 정상화될 것이라는 기대감과 함께 그렇지 않을 것에 대한 우려가 교차하는 2023년이었다.

당장 코로나 상황은 진정됐지만,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진정한 교회의 회복과 나아갈 길을 묻게 된다. 한때 기독교가 꽃 피웠던 유럽은 세속화로 인해 교회가 힘을 잃어버렸다. 한국도 산업화, 민주화를 지나며 교회가 급성장하다가 어느새 그 숫자가 심각하게 줄어가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교회의 모델이 필요하다. 역동적으로 사역을 펼쳐나가고, 세상과 소통하며, 현대인들에게 다가설 수 있는 교회 말이다. 기존 교회는 역사가 깊고, 조직이 복잡하기에 시시각각 변하는 상황에 유연하게 반응하기 어렵다. 오히려 규모가 작은 도약교회는 세상과 문화에 더 즉각적으로, 더 직접적으로 반응할 수 있다. 이번 발간된 『개척 레시피 4』는 ‘복음의 가치’와 ‘세상의 변화’ 속에서 열정 있는 교회들이 보여준 실험과 도전을 담고 있는 책이다.

2. 팀켈러는 그의 저서 『센터처치』에서 도시의 크기와 상관없이 도시의 상황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방식으로 성장하는 교회가 지닌 특징을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

1. 도시의 감수성을 존중한다.
2. 문화적 차이들에 대해 각별한 민감성을 가진다.
3. 이웃과 정의에 대해 헌신한다.
4. 신앙과 직업을 통합한다.
5. 전도에 대해 복합적 접근을 한다.
6. 도시 사람들에게 매력적이면서도 도전적인 설교를 한다.
7. 예술과 창조성을 중시한다.

『개척 레시피 4』에 소개된 교회들 안에서 팀켈러가 제시한 특성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 볼 수 있었다. 이 책에 실린 교회들은 한 영혼에 대한 민감한 감수성으로 다가섰으며, 일반적인 교회 사역의 경계를 뛰어넘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 찾아오는 신자를 기다린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해 몸부림쳤다. 지역사회와 연결되기 위해 끊임없이 문을 두드렸고, 그 지역에서 교회가 빛을 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역사가 오래되지 않았고, 조직이 단순했기에 기존 교회가 해보지 않았던 다양한 시도들을 해볼 수 있었다. 헌신된 목회자와 사랑으로 떠 났은 신앙 공동체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각자의 지역과 상황 속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소명에 응답하는 목회자와 교회들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하다.

3. 한국 교회는 변화하는 시대 상황과 포스트 코로나 속에서 새로운 교회의 모델을 찾아야 한다. 『개척 레시피 4』가 교회론에 대한 모범적인, 혹은 교과서적인 대답은 아닐지 모른다. 그러나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모델을 만들어 가는 교회의 이야기가 담겨있는 것은 분명하다. 우리는 그 이야기를 멋지게 써 내려가고 있는 젊은 교회들을 주목해야 한다.

넋두리처럼 ‘교회가 힘들다.’, ‘개척교회는 안 된다.’ 말하는 요즘이다. 그럴수록 추상화된, 학문적인 교회론 보다 생생한 목회의 현장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한국교회에 큰 힘이 될 것이다. 이 이야기가 신학생들에게, 개척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개척하여 고군분투하고 있는 교회에게, 한국교회의 희망을 찾고 싶은 이에게 맛있는 레시피로 전해지길 소망한다.

교회개혁과 성장을 돕는

개척레시피

SESSION 4

발행일 2023년 12월 28일

발행인 태동화 목사 (선교국 총무)

편집인 홍석민 목사 (선교국 국내선교부장)

집필 박영진 신동훈 김기승 목사

발행처 기독교대한감리회 본부 선교국

03186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149 감리회관 16층

전화 02-399-4333 / 4338

디자인·인쇄 디자인화소